



경희를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들

2012
Annual Report No.10
Towards Global Eminence
Kyung Hee University



경희를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들

2012
Annual Report No.10



2012 Annual Report No.10
Towards Global Eminence Kyung Hee University

CONTENTS

감사의 글	05	나눔이 만드는 아름다운 오늘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06	경희 2012
아름다운 이야기	16	한외과대학 학생 건축기금 모금 전달식 / 인터뷰_유도현 학생 건축위원회장
	18	지구사회봉사단, 캄보디아 기금 기부 / 인터뷰_ 김희찬 교수
	20	고액기부자 명예의전당 헌액식 및 감사패 전달
	22	이은태 명예교수 기부금 전달식
아름다운 사람들	26	청춘들에게 받은 사랑, 청춘에게 돌려주다_ 최상진 교수
	27	호텔관광대학 동문, 후배들을 위한 사랑으로 모이다_ 최수근 교수
	28	한국어 말하기대회 상금 기부한 야마나카 아키코 양_ 야마나카 아키코
	29	후배들의 사회진출 위해 다리 노릇하고파_ 김학두 동문
	30	경희에 받은 사랑, 경희에 돌려주다_ 김상조 대표
	31	오로지 학생들에 대한 애정으로 기부 시작_ 강현숙 사장
매그놀리아 스토리	34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증서 전달식
	36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금, 사랑의 열매이자 사명감
	37	칼럼
발전기금 현황	40	모금실적 통계
	41	기금사용 내역
	44	명예의 전당
	46	기부자 명단
발전기금 안내	56	발전기금 종류
	58	기부자 예우
대외협력처 소개	60	대외협력처 소개



감사의 글

나눔이 만드는 아름다운 오늘

언젠가부터 많은 이들은 모든 행동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눔 역시 그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가치를 증명하여도 그 증명만으로 나눔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기에 나눔이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 같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눔을 실천한 모든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자기 가치의 존중이었습니다.

나눔에는 생명력이 있어 나누어진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그 성장이 때로는 조금 더디게 느껴지지만, 또 다른 나눔들이 그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도 개교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여 그 나눔의 뿌리가 또 다른 나눔을 키워내는 과정을 거쳐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열 번째 연차보고서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희를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선배의 후배사랑을 담고, 교수의 제자사랑 나눔, 동문의 학교사랑 나눔, 학우들의 교우사랑 나눔, 기업의 교육사랑 나눔, 경희인의 세계평화를 위한 나눔 등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나눔의 이야기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지난 열 번의 이야기보다 더욱 벅차고 따뜻한 나눔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고, 후손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와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경희대학교의 학풍과 정신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오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연차보고서 편집위원회

경희 2012



경희,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대교협, 경희의 발전계획과 자율운영체제 높이 평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양교육 모범사례' 추천

2월 15일, 경희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으로부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대학평가인증기관 대교협이 각 대학의 자체평가를 토대로 대학 운영 전반의 질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대교협은 대학의 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 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영역 17개 부문에서 54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했다.

종합 강평에서 평가위원들은 "경희대학교가 교사와 비전에서 평화를 중요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 감명적"이라고 말한 후 "후마니타스칼리지 등을 통해 이를 단순한 관념이 아닌 대학 운영과 교육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구성원간의 소통 노력과 자율운영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심사 결과 경희대를 포함해 서울대, 성균관대 등 30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장애학생 지원 봉사단 '경희 그레이트 서포터즈' 3기 출범

국제캠퍼스 재학생으로 구성된 장애학생 지원 봉사단 '경희 Great Supporters'(이하 서포터즈) 3기 발대식이 지난 4월 6일 국제대학원 Auditorium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기획,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기획, 신입 장애학생 멘토링 운영, 서포터즈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력 행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10년부터 국제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서포터즈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장애를 넘어선 구성원 간 화합과 창조 가치를 창출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인문학, 희망을 증언하다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GSC) 실천인문학센터는 '2012년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총 3회에 걸친 사전 특강을 서울캠퍼스 오비스홀에서 진행했다. 정규강좌에 앞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희망의 증언'을 주제로 사진·시·영화와 접목한 인문학 강연을 통해 진정한 삶을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증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특강 첫날에는 '2011 올해의 사진가' 한겨레상을 수상한 이강훈 사진작가가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두 번째 강연에서는 김선우 시인이 '우리는 시를 통해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마지막 강연은 태준식 감독이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 이소선 여사의 삶을 다룬 다큐 영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은 인문학 교육을 통해 노숙인,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 참여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립 의지를 심어주고 사회공동체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월간(24주) 정규과정을 진행한다.





세계 문화 체험의 장 '경희 외국인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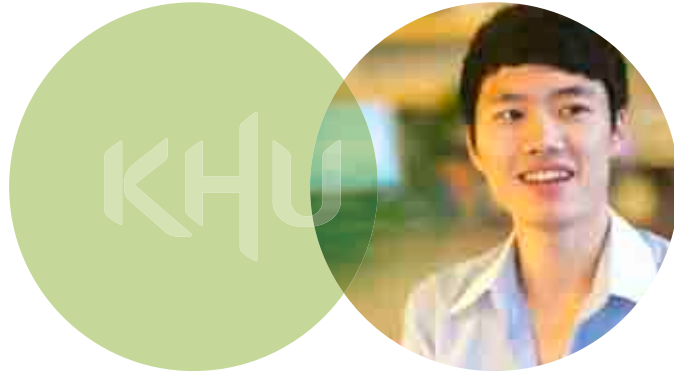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내·외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희 외국인 한마당'이 5월 16일 임간교실에서 개최됐다. 1997년에 시작해 올해 16회를 맞이한 경희 외국인 한마당에는 국제교육원 한국어 재학생을 비롯해 일본공과대 파견 예비 과정 학생, 경희대 소속 내·외국인 교원 등 9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1부 세계 음식 축제, 2부 국제 문화 축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계 음식 축제에는 일본, 리투아니아, 방글라데시, 태국, 중국 등 12개 나라, 12개 팀, 60여 명의 외국인 재학생이 참여해 자국의 전통 음식을 직접 요리하고 선보였고, 국제 문화 축제에서는 인도, 프랑스, 케냐, 멕시코, 브루나이 등 12개 나라 참가자들이 자국의 전통 노래와 춤, K-POP 등을 공연하며 세계 각국의 문화를 교류했다.

소통과 나눔의 축제, 경희봉사페스티벌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캠퍼스 청운관 일대 등에서 제4회 경희봉사페스티벌이 개최됐다. 경희봉사페스티벌은 2009년부터 경희봉사단 주최로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봉사를 위해 달려가는 이들 모두의 축제'라는 주제 아래, 국제개발·다문화·아동·장애·실버(노인)·환경·생명 등 7개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희봉사단원 40명과 학생 250여 명, 각종 NGO 단체 등이 참여해 소통과 나눔, 연대와 협력의 축제를 선보였다.

경희봉사단은 2003년 조직됐으며, 매년 40명의 기획단을 주축으로 500여 명의 자원봉사 학생이 활동하는 비영리·순수 학생봉사단체로 지역사회 NGO 및 복지기관, 봉사단체와 연대해 정기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경희봉사페스티벌 외에도, 사랑의 송편 만들기, 김장 담그기, 사랑의 물레 산타 등 다양한 교내외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어 도우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서울캠퍼스 국제교육원은 6월 13일 '2012 봄 정규 과정 우수 한국어 도우미'를 발표했다. 최우수 한국어 도우미는 외국인 학생의 추천, 도우미 활동일지의 수 및 내용의 충실성을 토대로 선발된다. 이번 학기에는 최우수 도우미 4명과 우수 도우미 8명이 선정됐다.

이번 학기 최우수 도우미 선정자 중 우형민(경영학과 07학번) 학생은 1학년부터 3학년인 현재까지 군 복무 시기를 제외하고 한국어 도우미로 꾸준히 활동해왔다. 도우미 활동 회수만 총 16번인 '베테랑' 도우미다. 그는 “한국어 도우미 활동을 통해 대학 생활에서 새로운 자극과 즐거운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라며, “도우미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학생들을 통해 배울 점 또한 많고, 무엇보다 대학 시절에 외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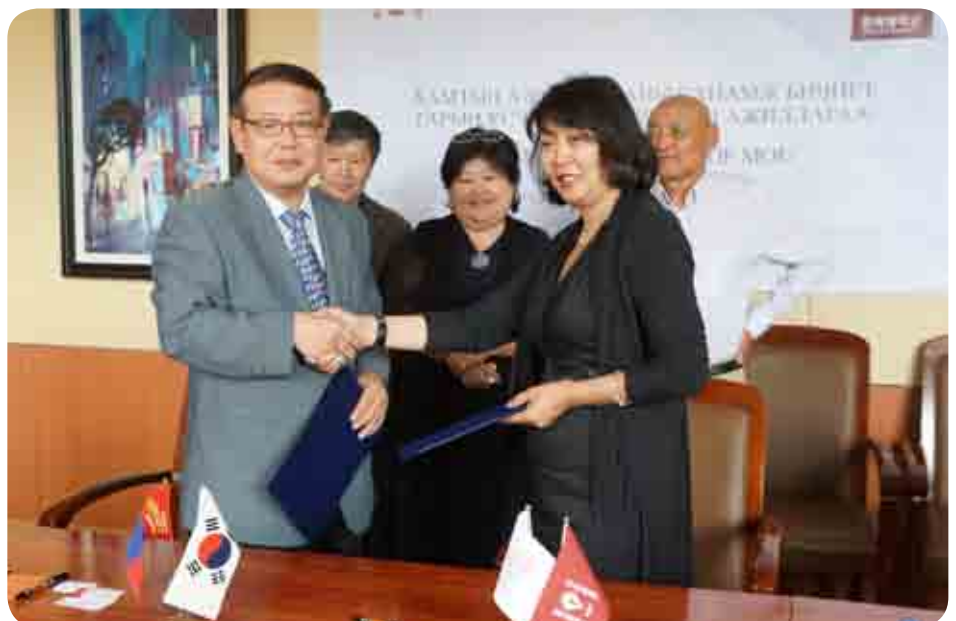
경희 2012

GSC 몽골봉사단, 몽골 대통령 훈장 받아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GSC) 몽골봉사단이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환경사업과 의료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 대학 최초로 몽골 대통령의 훈장을 수훈했다.

7월 2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몽골봉사단과 주민 간 '화합의 장' 행사에서 봉사단 대표로 박한규 경희지구사회봉사단 사무총장, 박종해 미술대학장, 이진곤 몽골해외봉사단장, 최우석 의과대학 교수가 몽골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수여하는 551번째 민주혁명 90주년 훈장을 전달받았다.

경희대학교는 1980년대부터 인류사회 재건과 평화를 위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대학의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한 거교적 사회공헌 기구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GSC)을 창설하고, 미래대학의 새로운 사회공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경희 2012

“미래대학의 길, 우리는 어디에...”

2012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가 8월 22~23일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됐다. “미래대학의 길, 우리는 어디에...(Academe and Administration, On the Way We Are)”를 주제로, 지난 5년간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열어온 경희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대학발전의 중추인 ‘학술’과 ‘행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탐색했다. 연찬회에는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재정사업위원장, 교무위원, 의료기관장, 경희사이버대학 부총장 및 교무위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또한, 200여 명의 교수, 교직원이 웹캐스트를 통해 생중계된 연찬회에 참여했다. 이번 연찬회에선 학문과 평화, 학술과 실천의 지구적 탁월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창조의 여정을 점검하고, 부분과 전체의 조화로운 결합, 학술문화 조성 및 행정 전문화를 위한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이후 주관 부서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하며, 합동교무위원회 홈페이지에 논의 내용과 사안별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공지하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 최초, UN ECOSOC 특별협의 지위 획득

경희대학교가 2012년 7월 27일 국내 대학 최초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서 특별협의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했다. 이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 속에서 인류평화에 기여해온 경희의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다. 1981년 유엔이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희는 2011년 9월 15일 'UN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난 63년 동안 고등교육과 사회공헌을 통해 국가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해왔다.

협의 지위 획득으로 앞으로 경희대학교는 유엔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 구두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으며, 유엔 및 국제 NGO 회원 단체와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국제 네트워크의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특정 이슈에 대해 현장 경험을 통한 전문가 분석을 제공하고 국제적 협약에 대한 감시와 이행을 지원하는 등 유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Towards Global Eminence
Kyung Hee University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중국 연변(延邊) 의료봉사 실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8월 15일부터 5일간 중국 연변 연지(延吉) 제2인민병원에서 조선족자치주 주민 1,018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연변 의료봉사에서 확인된 조선족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당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포함, 7개 과목의 의료활동이 이뤄져 총 3,443건의 진료와 함께 인공 영덩이관절 수술, 인공 무릎관절 수술, 척추 수술 등 6건의 수술을 진행했다.

연변 의료봉사를 진행한 '희망사회만들기' 의료봉사단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롯데복지재단이 상호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일환으로 구성된 단체로, 의술을 통한 '지구촌 인류평화 구현'이라는 경희의 창학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경희 2012

Peace BAR Festival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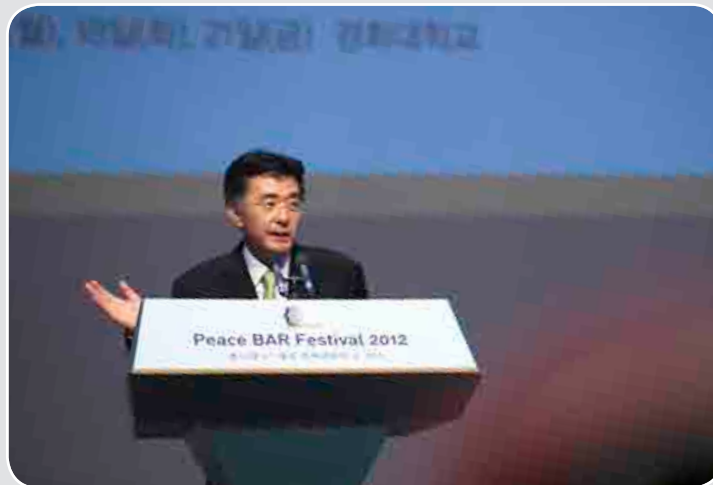
경희대학교가 9월 셋째 주(9.17~18, 21)에 '제31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2'를 개최했다. '인간, 정치, 문명(Humanity, Politics and Civilizations)'을 주제로,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일주일간 다양한 학술-문화 행사와 함께, 지구시민사회와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축제를 펼쳤다.

9월 17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개회식과 기념무용제를 시작으로,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첫 순서로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예일대 석좌교수가 '문명 전환의 정치(The Politics of a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를 주제로 강연했다.



18일에는 국제회의의 두 번째 순서로, '지식의 구조들: 과학과 인문학의 인식론적 재융합?(Structures of Knowledge: Epistemological Reconvergence of Science and the Humanities?)'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으며, 평화의 전당에서는 '지구사회봉사 한마당(Global Service Corps Festival)' 행사와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현정음악회'가 공연됐다.

21일에는 Peace BAR Festival 2012의 마지막 행사로 'UNAI ASPIRE Kyung Hee Forum'이 국제캠퍼스 국제경영대학관에서 열렸다. '동북아 지역의 갈등 예방을 위한 UN과 청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중·일 유엔협회가 주관하는 3국 모의유엔회의 및 청년포럼과 연계되어 진행됐으며 동북아 지역의 뿌리 깊은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청년학생의 역할을 모색했다. 경희대학교는 세계평화의 날(9월 21일)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해왔다.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1주기 추모 원탁회의 개최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1주기 추모 원탁회의가 2013년 2월 18일 서울캠퍼스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12년 2월 18일 타계한 조영식 박사의 1주기를 맞아 열린 원탁회의는 ‘학술과 평화 – 경희는 무엇을 기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기념사업추진단 등 60여 명은 조영식 박사의 철학과 사상을 되새기고 현재화, 미래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조영식 박사의 학술과 평화 사상, 세계적인 대학을 향한 뜻을 공유하고,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조 박사의 사상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과 연구, 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조인원 총장은 총평을 통해 “앞으로도 후학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대가 요청하는 인류의 보편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교육·연구·실천 부문에서 창조적으로 구현해 미래대학의 새로운 전범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Towards Global Eminence
Kyung Hee University





아름다운 이야기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한외과대학 학생 178명, 건축기금 기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1,490만여 원 기금 조성

한외과대학 학생들이 캠퍼스종합개발사업 'Space 21' 1단계 사업에 포함된 한외과대학 신축의 성공을 염원하며 건축기금을 기부했다. 9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건축기금 모금 활동을 펼친 한외과대학 학생회는 한외과대학 학생 178명의 동참 아래 건축기금 14,854,000 원을 조성했다. 한외과대학 학생 178명이 기부에 동참했다. 기금은 12월 6일 한외과대학 중경실에서 열린 '한외과대학 학생 건축기금 모금 전달식'에서 대학에 전달됐다.



12월 6일, 한외과대학 학생
건축기금 대학에 전달

이날 전달식에서 김운호 대외협력처장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에 감사를 전하고, "한외과대학 발전을 바라는 학생들의 마음이 교수, 동문, 한외과대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외과대학 김태형(한외과대학 09학번) 학생회장은 "그동안 한외과대학 신축사업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았고, 학생의 1/3 이상이 이번 기부에 참여했다"면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그동안 한외과대학은 학생건축위원회를 구성해 한외과대학의 숙원사업인 단과대학 건물 신축사업에 참여해왔다. 아울러 한외과대학 건물의 성공적 신축을 위해 7월부터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해 130명이 넘는 동문이 기부를 약속하기도 했다. 캠퍼스종합개발사업 'Space 21' 조감도는 12월 21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매그놀리아 2012'에서 공개되며, 사업은 12월 28일 착공된다. ♡



Interview

경희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담다

한의과대학 학생 건축위원회장
유도현

12월 14일 기준, 약 3,500만 원의 한의과대학 신축 기금이 학생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의과대학 학생들이다.



한의과대학에는 한의과대학 신축을 위한 학생 건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한의과대학 학생건축위원회는 한의과대학 건축의 전반적인 진행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한의과대학 학생 건축위원회는 지연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신축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월에 만들어진 학생 자치기구다. 이후, 3월 15일 한의과대학 학생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독자기구로 인정받고 10명의 학생 건축위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학생 건축위원회에서는 지난 2012년 여름방학부터 학생 건축기금운동을 준비했고, 같은 해 9월 13일 한의과대학 학생총회에서 기금모금운동을 허가받아 3개월 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4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3,500만여 원을 모을 수 있었다. 학생이 건의하고 학생들이 공감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야말로 아름다운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기금이다.

한의과대학 학생 건축위원장인 유도현 군은 “한의과대학 신축은 졸업선배들부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까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동문들의 숙원사업이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만큼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하루빨리 완성됐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의 한의과대학 신축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유도현 군은 “흔히들 기부는 나누는 것이라고 말한다. 음식, 옷, 물질, 재능 등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며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말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나눔’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대상과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부를 하는 목적에 공감하고 기부 대상의 상황과 조금이나마 일치를 느끼고 그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의과대학 건축기금 모금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마음을 전했다. “단순히 얼마의 돈을 주었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의과대학과 경희대학의 발전을 위한 일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한의과대학, 나아가 경희대학교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나누는 ‘기부’를 한 것이다. 하지만 건축기금으로 모은 돈이 건축에 사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여러 학우들과 동문들의 건축기금 조성에 대한 기부가 더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유도현 군은 “학생들의 아름다운 이 마음이 우리들의 바람인 한의과대학 신축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경희대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당국에 자신들의 건축기금 전달에 대한 의의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기금 조성에 참여해준 한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한의과대학과 학교 발전을 위해 용돈을 아껴가며 기부에 참여해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학생 건축위원회를 신뢰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줘서 너무나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3,5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금조성목적이자 그들의 바람인 한의과대학의 신축을 위해 학생건축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앞날이 주목된다.

GSC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1기 32명, 사회봉사기금 기부

1기 학생 전원 참여해
200만 원 조성
“나눔 실천한 봉사활동으로
더 많이 배워”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GSC)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1기 학생 32명이 2013년 1월 21일 'GSC 캄보디아 기금'을 기부했다. 2012년 1월 8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주 크라란군 크로치꺼면 크나쯔응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봉사단 1기 학생들은 2기 파견에 앞서, 사회봉사기금 100만 원을 조성했다. 이번 모금활동에는 박한규 GSC 사무총장이 학생들의 뜻에 동참해 100만 원을 기부, 총 200만 원의 기금이 마련됐다.



캄보디아 봉사단 1기 학생들은 2012년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정기 모임을 갖고 당시 인연을 맺은 현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모았다. 유혜인(아동가족학 08학번) 학생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워왔다”며 “그런 경험을 공유한 친구들과 현지인을 도와줄 방법을 고민하다가 ‘기부’라는 방법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의미있는 일에 쓰일 수 있길 바란다. 박한규 사무총장은 “이번 모금활동이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기금화로 이어져 여러 사람이 봉사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GSC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1기는 캄보디아 크나쯔응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캄보디아 봉사활동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선정으로 경희대학교 GSC가 추진하는 ‘캄보디아 씨엠립주 크라란군 크로치꺼면 크나쯔응마을 농촌개발모델 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다. 이는 국외 거점 지역에 경희마을공동체(kyung Hee Peace Village)를 조성해 대학의 역량을 결집,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적 개발협력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Interview

해외봉사활동, 학생들의 아름다운 기부 문화 형성하다



경희지구사회봉사단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1기 인솔교수
김희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캄보디아 국민들을 위한 기부금액이 적립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경희지구사회봉사단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1기 구성원들이다.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은 100만 원, 그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기금은 현재 280만 원의 금액이 적립된 상황이다.

경희지구사회봉사단은 경희대학교의 범대학 차원의 사회기구이다. 경희지구사회봉사는 단순한 나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해 경희지구사회봉사단은 KOICA에서 실시하는 '대학 개발협력 역량증진 사업'에 선정되어 캄보디아 씨엠립주 크라란군 크나뜨엥 마을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는 학생봉사단을 2주간 파견했다.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1기와 2기는 각각 30명, 35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2기 때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의료진 12명,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원 8명, 스태프 3명 등 58명으로 구성된 인원이 파견되어 캄보디아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캄보디아 해외봉사단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이 기금을 약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들을 인솔했던 김희찬 교수는 "현지 파견봉사 종료 후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는데, 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현지 마을로 기부금액을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는 "1기 참가자들 30명이 매월 소정의 금액을 모아 100만 원을 가지고 왔다. 이 돈을 캄보디아로 바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 학생들의 뜻을 알고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외협력처에 기금을 약정하게 됐다"며 캄보디아 목적기금 조성의 뜻을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먼저 제안한 거라 당혹스러우면서도 감명 깊었다"며 "학생들이 먼저 기부금을 제안해서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당시의 느낌을 전했다. 학생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인해 GSC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람들의 기부로 이어져 현재 280만 원의 기금을 약정할 수 있었다. 올해 캄보디아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됐던 2기 학생들도 1기의 전통을 이어받아 '경희지구사회봉사단 캄보디아 기금' 조성에 동참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캄보디아 현지 인들을 향한 경희지구사회봉사단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름다운 기부문화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아름다운 기부문화 형성에 영향을 준 해외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수년간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희찬 교수는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봉사단 참여 때 굉장히 많은 것을 봉사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자신이 파견 이전 교육 시간에 항상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봉사단 파견 비용을 캄보디아에 바로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굳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학생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을까?" 김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해 "해외봉사활동의 1차 목적은 현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2차 목적은 학생 교육 차원이다. 이 두 목적을 접목시켜서 하는 것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후속사업 기획 때 참여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신이 그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로부터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봉사에 대한 참 의미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고액기부자 명예의전당 헌액식 및 감사패 전달

간호과학대학 교수 6명,
경희의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

고액기부 교수들에 대한 명예의전당 헌액식 및 감사패 전달식이 12월 3일 서울캠퍼스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새로 명예의전당에 이름을 올린 6명은 전원이 간호과학대학 교수들로, 강현숙, 김광주, 김윤희, 이향련 명예교수와 현경선 간호과학대학장, 김원옥 교수 등이었다.

헌액식에는 김정만 서울부총장, 유명철 의무부총장, 김운호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정만 부총장은 “간호대학에는 기부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한 문화가 경희학원 전체로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명철 의무부총장은 “간호대학 교수님들이 그동안 학교에 대한 이해와 기여가 높았다”라며 “이를 계기로 학교와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부' 약속

더 많은 동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필요

고액기부 교수들은 모두 5,000만 원 이상을 기부했으며, 현경선 학장은 최근 5,000만 원을 추가해 기부액이 1억 원을 넘어섰다. 현경선 학장은 “건강을 위해 걷지는 생각으로 승용차를 처분한 금액을 학교 발전에 보태기로 했다”면서, “기부는 어려운 일이 아니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경선 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가 나아가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꾸준한 기부 활동을 약속했다.

40여 년 동안 재직해온 김윤희, 이향련, 강현숙 명예교수는 “경희대학교와 간호대학이 더욱 발전하고, 후학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숙 명예교수는 “1997년 간호대학 평가가 있던 때부터 조금씩 기부해왔는데,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큰 금액으로 쌓였다”면서, “42년 6개월 동안 학교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얻고, 감사할 일이 많아 보답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경희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관련, 김원옥 교수는 “동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운호 대외협력처장은 “학교 전체는 물론, 단과대학 차원에서도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와 의료기관 이용 등의 서비스 수준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

“경희대학교와 간호대학이 더욱 발전하고, 후학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은태 명예교수, 대학 발전기금 기부

대학 발전과 미래 공학
인재 육성 위해
2,000만 원 전달해와

토목공학과 이은태 명예교수가 9월 4일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국제캠퍼스 부총장실에서 진행된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오택열 국제 부총장, 김운호 대외협력처장, 고석오 토목공학과장, 박경규 국제 발전기금계장이 참석했다.

이은태 명예교수는 30여 년간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지난 8월 정년퇴임 후 명예교수에 임명됐다. 이은태 명예교수는 “그동안 경희대 교수로 재직하며 제자들의 성장에 뿌듯함을 느껴왔고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구 활동 또한 활발히 펼쳐 공학도로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좋은 환경 속에서 30년을 지낸 만큼 이에 대한 보답과 함께 미래의 공학 인재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기부의 계기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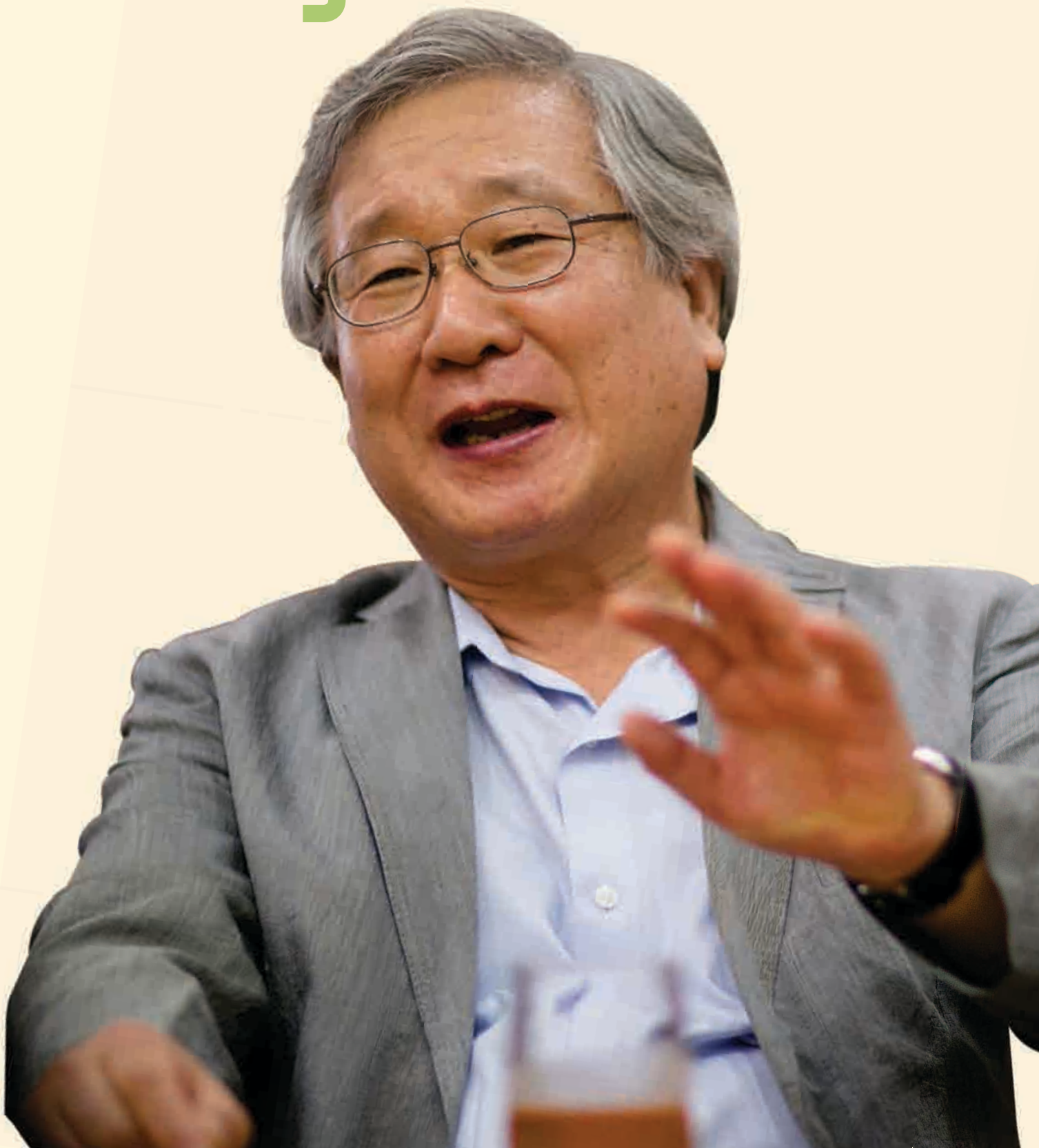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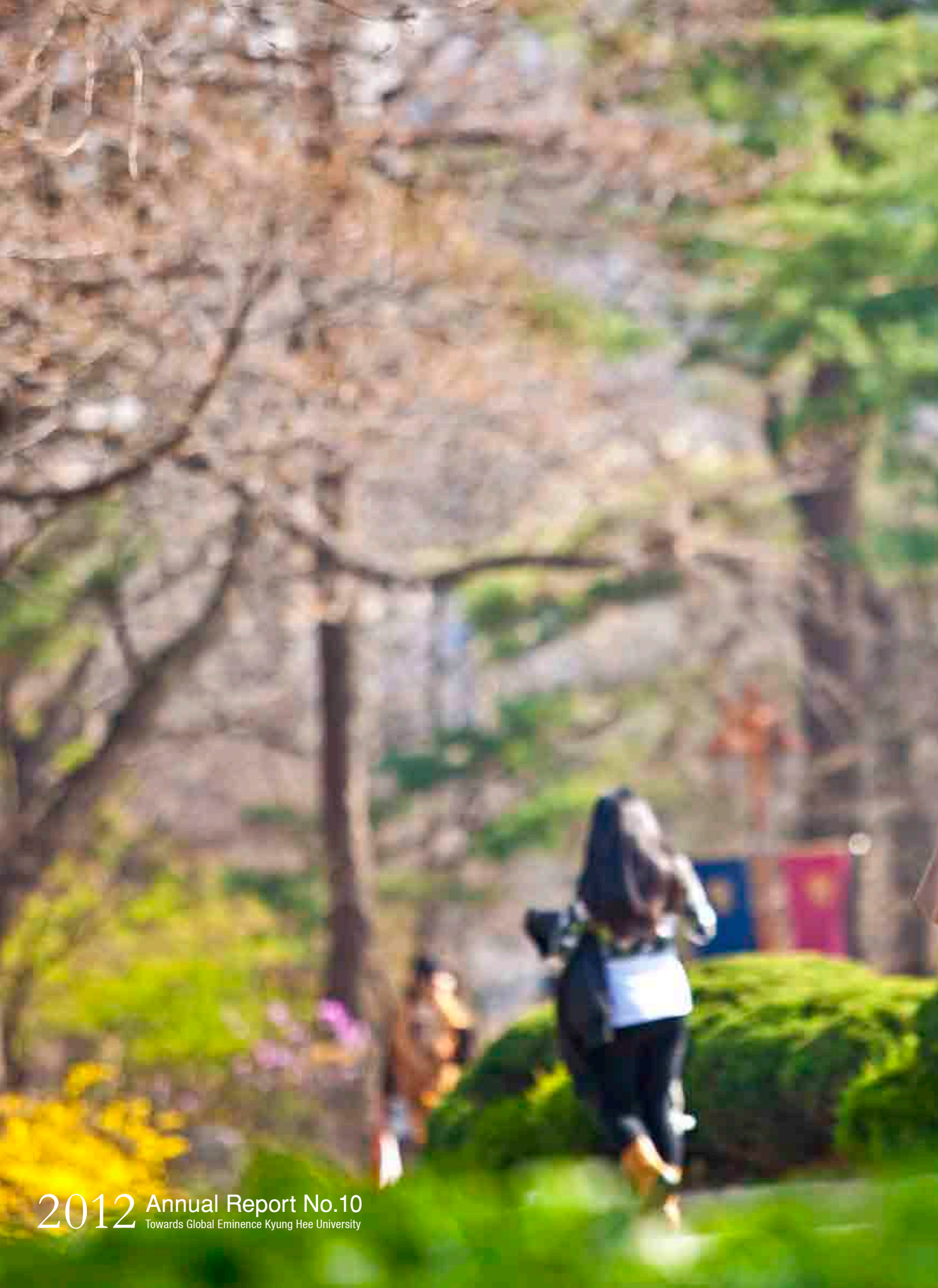
퇴임식도 마다하고
발전기금에 보태

이은태 교수는 지난 1993년부터 일반 발전기금 및 토목공학과 기금을 꾸준히 기부해왔다. 평소 검소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동료 교수와 제자들의 존경을 받아온 이 교수는 30년간의 봉직을 기념하는 정년퇴임식도 마다하고 퇴임식 비용을 포함하여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토목공학과와 성장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이은태 교수는 “추후 기회가 있다면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대학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고석오 토목공학과장은 “이은태 명예교수의 기부는 교수 및 학생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

“좋은 환경 속에서 30년을 지낸 만큼
이에 대한 보답과 함께 미래의
공학 인재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 아름다운 사람들

경이적이며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사람들



청춘들에게 받은 사랑, 청춘에게 돌려주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상진 교수

청춘들에게 받은 사랑, 경희대학교에서 받은 사랑을 경희대학교에 모두 돌려줄 거라는 최상진 교수는 40여년간 경희대학교와 함께하며 현재까지 약 2,100만 원의 기부금을 적립했다. 장학기금과 중앙도서관발전기금, 소외계층시민인문학기금, 미래문명원실천인문학센터기금 등 기부금의 항목도 다양했다.

최 교수는 실천인문학 센터장 당시 유지한 연구프로젝트에서 받은 비용 중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일부를 '미래문명원 실천인문학센터 기금'과 '소외계층시민인문학 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바 있다.

또한 학생을 사랑하는 교수답게 '이런 저지같은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본교 미디어센터에 청춘들을 위한 칼럼을 연재 중이다. 이 칼럼을 통해서도 그의 기부 본능을 볼 수 있었다. 청춘들을 위한 칼럼이기에 칼럼 원고료를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것이다. "청춘을 위한 글을 쓰면서, 원고료를 청춘들을 위해 쓴다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며 칼럼 원고료를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동기를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2012년, 문과대학 최우수 교수로 선발되기도 했다. 그는 "학생들이 뽑아준 것이기에 최우수 교수로 선발되면서 받은 상금은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상금 전액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

하기도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입학사정관을 역임하면서 받게 된 수입을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외계층 전형 입학사정관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

최 교수로부터 기부와 관련된 독특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제자들의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을 때, 반드시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받는다고 한다. '부부가 반드시 아동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루 꼭 같이 해보기, 결혼비용의 0.1%를 기부할 것.' 주례를 서면서도 기부할 것을 강조하는 그에게 기부에 대한 생각을 묻자 "돈을 주고받는 게 기부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의 10%만 사회를 위해 기부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윤택해질 수 있을 것이다"며 스스로가 행복하기 위해 기부를 실천한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기부 문화에 쉽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난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자랑스러운 경희인이 될 수 있도록 교수와 교직원을 비롯한 경희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희인들을 향한 바람을 전했다.

최상진 교수는 본교 신문방송국장, 중앙도서관장, 학생처장, 문과대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청춘이 있어 행복했고
청춘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청춘 곁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다음 청춘을 위해 떠나는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떠나겠습니다.”

호텔관광대학 동문, 후배들을 위한 사랑으로 모이다

호텔관광대학 최수근 교수

“아무래도 1회 졸업생이다 보니 동문들의 구심점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마침 우리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그놀리아스토리 캠페인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국내 관광산업을 리드하고, 학문적 측면에서는 아시아 전체에서도 최고를 자랑하는 본교 호텔관광대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단과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적인 단과대학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후배들을 위한 사랑으로 본교 호텔관광대학 조리학과 동문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조리학과 학생들이 실습하는 공간 개선 목적으로 1,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그 중심에 최수근 교수가 있었다.

최수근 교수는 본교 호텔관광대학 조리학과 1회 졸업생으로 20여 년간 신라호텔과 하얏트 호텔에서 활동한 뒤, 현재는 조리학과 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는 “아무래도 1회 졸업생이다 보니 동문들의 구심점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마침 우리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그놀리아스토리 캠페인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기부자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본교 매그놀리아스토리 캠페인에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동문들의 기부 독려를 위해서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후배들의 실습실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목적’을 정했다. 목적이 좋아 많은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기금이 조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전했다.

실습실 개선 시공을 담당한 아시안룩스 업체에서도 동문들의 아름다운 취지에 공감해 1,000만 원의 금액을 기부해 제자들의 실습 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

호텔관광대학 차원에서의 발전기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2011년에는 동문들의 기부로 재학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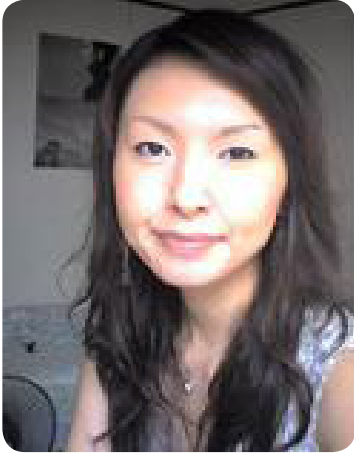
을 만들고,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일례로, 2010년부터는 김대곤 동문이 50년간 매년 1000만 원씩 기금을 약정해 재학생 5명에게 각각 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호텔관광대학 동문회에서는 호텔건립 사업을 목적으로 2억 원 정도의 기부금이 모인 상태다.

최수근 교수는 “기부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며 “아름다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동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최 교수는 “얼마 전 진행됐던 김치버스 프로젝트와 같은 행사에 도움될 수 있는 기금을 모으는 게 목표다”며 “후배들을 위해 동문들이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어 말하기대회 상금 기부한 야마나카 아키코 양



야마나카 아키코

“경희대 교수님들로부터 받은 감동, 기부로 보답합니다.”

지난 2012년 5월 17일,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과 연합뉴스 주최로 열린 제15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대회에서 인기상을 받은 야마나카 아키코 양이 상금을 국제교육원 증축 기금으로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기념으로 참가에 의의를 뒀는데, 제 의도와는 달리 수상까지 하게 되어 기부를 결심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가능하다면 일본어를 공부하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회를 담당한 교수진들이 일본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야마나카 아키코 양을 배려하여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뜻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와 문화로 세계를 만나다’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그녀는 ‘케이팝, 그것은 용기가 나는 마법’이라는 주제의 스피치로 인기상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요즘, 그 인기 비결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인간성 자체가 케이팝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라며 바쁜 생활 속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케이팝 가수들의 열정을 보고 자신도 좀 더 열정적으로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내용의 스피치였다.

그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제2외국어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배우 원빈이 출연한 한일 공동제작드라마 <프렌즈>를 보고 원빈과 한국어로 대화해보고 싶었어요”라며 그 꿈을 가지면서부터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한다.

야마나카 아키코 씨에게 ‘경희대학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인지 묻자, 그녀는 “경희대학교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대학이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르네상스적인 분위기의 건물이 예쁘다는 점과 연예인들이 많이 재학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가하면서 경희대학교 교수님들로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라며 그때의 교수님들로부터 받은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야마나카 아키코 양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국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주기 바랍니다”는 말과 함께 경희대학교 교직원 및 교수진에게 “일본에 관심을 갖고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할 한국 학생을 많이 배출해 주세요”라는 바람을 전했다. ♡



후배들의 사회진출 위해 다리 노릇하고파



대림산업 / 토목공학과 82학번
김학두 동문

“내가 학교를 다닐 때나 지금이나
등록금 걱정을 하는 건
여전하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했다”

경희대학교 토목공학과 발전과 후배들의 취업을 위해 힘쓰는 동문이 있다. 바로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림산업 토목설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학두 동문이다. 그는 매년 국제캠퍼스 교정을 방문해 후배들과 모교를 위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김학두 동문은 토목공학과를 비롯한 경희대학교의 발전과 후배들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900만 원을 기부했다. 김 동문의 기부는 후배들을 위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했다.

김 동문이 본교 재학 당시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3~4명으로 한정돼 있었다.

“재학 당시 전액장학금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전액장학금은 한 명에게만 주어졌기에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후배들과 동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다”며 “어린 마음에 커서 기회가 된다면 조금씩이라도 후배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었다는 김 동문. 그는 대학 재학 당시부터 기부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실천으로 옮기게 된 것은 졸업 후 모교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후배들의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듯 듣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김 동문은 당시

“내가 학교를 다닐 때나 지금이나 등록금 걱정을 하는 건 여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했다”고 장학기금 기부에 대한 동기를 전했다.

김학두 동문은 후배들의 취업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김 동문은 토목공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건설산업과 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 특강을 통해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소개와 직무 소개, 취업준비 노하우를 신입생들에게 전하고 있다. 또한 공사를 비롯한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경희 동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후배들의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면접’ 특강도 진행한 바 있다.

김 동문은 “토목공학과 동문회에서든 후배들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토목공학과 동문회의 기금 조성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토목공학과 동문회는 총동문회 이외에도 세부전공에 맞게 경구회, 경토회, 경수회, 경목회, 경도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각 모임에서도 기금 조성과 함께 동문들의 협업을 통한 후배들의 사회진출에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열리는 토목공학과 홈커밍데이 때마다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토목공학과 발전기금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 동문은 “그동안 경희대학교가 많이 발전해왔다. 교직원과 학생, 동문을 비롯한 경희인 모두가 경희대학교의 더 큰 발전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에서 힘써주길 바란다”며 “경희인 모두가 각자의 꿈과 이상을 향해 날개를 활짝 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희에 받은 사랑, 경희에 돌려주다



경희 후원의 집 '노바 이탈리아노'
김상조 대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부를 하는 것이 목표”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요리에 대한 열정 하나로 레스토랑을 시작한 김상조 대표, 그가 운영하는 '노바 이탈리아노'는 새롭고 다양한 음식맛과 친절한 서비스로 외식업계의 주류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매달 5만 원씩 기부금을 내는 '경희 후원의 집'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경희 후원의 집은 본교와 약정을 맺고 학업에 대한 열정과 꿈이 가득한 학생을 후원하는 인근 상가업체들을 의미한다.

김상조 대표는 장인정신을 가진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요리사의 길로 나섰다. 김 대표의 어릴 때 꿈은 사업가였다. 어릴적 꿈과 요리사의 길을 함께할 수 있는 외식사업을 목표로 2002년 지금의 경희대 앞에서 파스타전문점을 시작하게 됐다.

그는 “손님이 없어서 힘든 적도 많았다. 하지만 힘들 때 견뎌낼 수 있었던 건 투자자나 사업가로서의 생각보다는 장인정신을 가진 요리사가 꿈이기에 가능했다”며 요리사를 하게 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조 대표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젊은 감각과 생각은 항상 고객 위에서 먼저하고, 머리는 항상 고객 아래로 향한다는 정신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요리사이자 경영가가 될 것을 다짐했다.

경희 가족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경희 후원의 집에 동참하게 됐다는 김상조 대표, 그에게 기부란 어떤 의미일까? 그는 “사실 기부를 많이는

못 하고 있다.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기부'가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며 기부가 힘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미안한 듯 말했다. 외식업을 운영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는 김 대표, 하지만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큰 성공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부를 하는 것이 목표”라며 꾸준한 기부를 향한 의지를 전했다.

끝으로 김상조 대표는 경희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바빠서 서비스가 미흡할 때도 있지만, 교수님과 교직원 분들을 비롯한 많은 경희인들이 가게를 계속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특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격려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외부손님을 모시고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경희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서 '노바 이탈리아노'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2002년에는 학생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과 교류를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경희대학교 학생들과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노바 이탈리아노'를 비롯한 경희 후원의 집 홍보동영상은 각 단과대학 입구에 설치된 IP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오로지 학생들에 대한 애정으로 기부 시작

국제교정 경희후원의 집
'지호한방삼계탕'
강현숙 사장



“학생들과 가까이서 일하다보니
자연스레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됐다.
큰돈은 아니지만 장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경희후원의 집 참여를 통해
장학기금을 계속해서 기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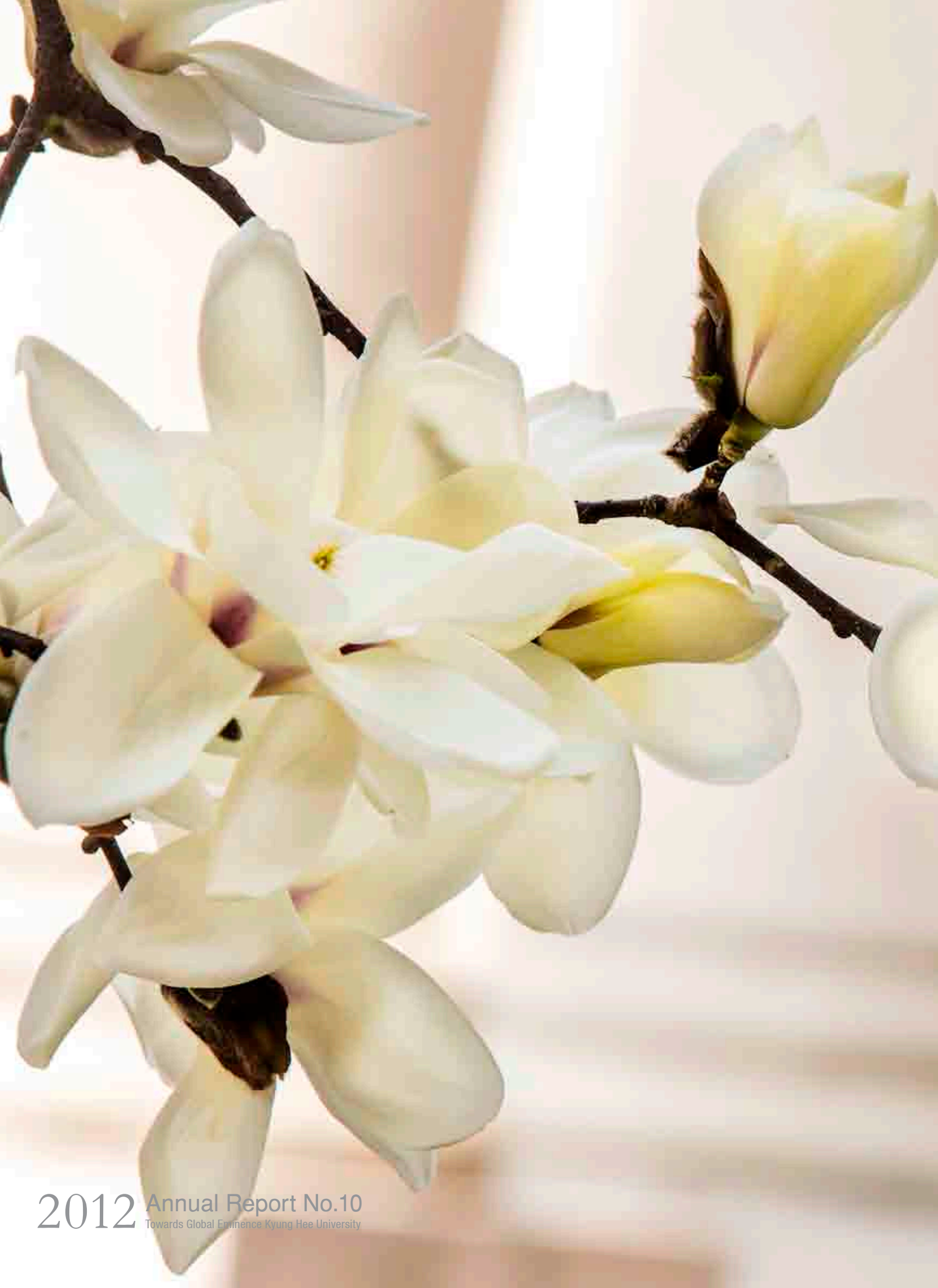
경희후원의 집 기금 조성이 시작되던 2007년 1월 22일 부터 지금까지 6년이 넘도록 한 번도 빠짐없이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에 참여해 경희후원의 집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본교 국제캠퍼스 경희후원의 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호한방삼계탕 수원 영통점의 강현숙 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강현숙 사장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07년부터 매달 5만 원씩 후원의 집 기금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조류독감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장학기금 기부를 멈추지 않았다. 강 사장은 ‘학생들 장학금’ 기금 조성이라는 목적이 무척 좋은 것 같아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삼계탕을 시작하기 전 서점을 운영하면서 쌓게 된 대학생들에 대한 애정에 대해 말했다.

강현숙 사장은 원래 명지대학교 앞에서 18년 동안 ‘남가서적’이라는 이름으로 서점을 운영했었다. “서점 시장상황이 악화돼 2006년부터 서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지호한방삼계탕 사업을 원래 고향인 수원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아무래도 학생들과 가까이서 일하다보니 자연스레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됐다”며 “큰돈은 아니지만 장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경희후원의 집 참여를 통해 장학기금을 계속해서 기부할 것”이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친척 중에 본교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졸업생이 있어 경희후원의 집 이전부터 경희와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강현숙 사장은 “삼계탕은 계절음식이라기보다는 보양식이다. 커피나 인스턴트 음식을 즐기기보다는 많은 경희인들이 건강을 생각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찾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 매그놀리아 스토리

자연에서 찾아낸 우리만의 향과 맛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증서 전달식

1년간 모은 기금으로
학생 131명에게 장학금 지급

경희대학교의 발전기금 소액모금 프로그램 ‘매그놀리아 스토리(Magnolia Story)’를 통한 장학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지난해 매그놀리아 스토리의 첫 장학생 44명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 131명(서울 74명, 국제 5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규모 역시 3,906만 원에서 1억 2,829만 8천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11월 9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2012학년도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증서 전달식’이 열렸다. 행사에서는 ‘마음읽기’ 시간을 마련해 기부자와 수혜자가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인원 총장, 공유할 수 있는 의식·가치의 중요성 강조

조인원 총장,
“선배들의 소중한 뜻과 정성이
담긴 나눔의 문화”

이날 조인원 총장은 “우리 모두는 개인이면서도 경희 공동체 구성원이며, 나아가 사회와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자신의 발전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 인류를 향해 무한히 열려 있다”고 전하면서 “경희는 지난 63년 동안 이 정신을 기반으로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이념 아래 구성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식과 가치를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이 같은 전통의 일부분으로 선배들의 소중한 뜻과 정성이 담긴 나눔의 문화”라고 소개한 뒤, “장학금을 받는 후배들도 대학에 다니면서 또 는 사회에 진출해 타인이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와 문화를 가꿔나가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수 동문,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멋진 선배 됐으면”

‘마음읽기’의 첫 번째 주인공인 김연수(한의학과 63학번) 동문은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금은 동문과 재학생, 교수, 직원 등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한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며,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멋진 선배, 아울러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연수 동문은 서울 관악구 서림동(구 신림2동)에서 44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지역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펼쳐왔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의과대학 발전기금과 장학금 5억 2,400만 원을 경희대학교에 기부하기도 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증서를 전달받은 강규원(무역학과 08학번) 학생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모은 기금을 받아 경희의 끈끈함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나중에 후배들에게 그 감사함을 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훗날 선배가 되어 미래의 후배를 돕는 경희의 기부문화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선배에게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배가 ‘훗날 선배가 되어 미래의 후배를 돕겠다’는 마음을 약속함으로써 경희의 기부문화 전통을 만들어가는 작은 나눔 실천 캠페인이다. 동문이 주축이 돼 기부를 약속하고 교수, 직원, 학생 등 경희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후배사랑, 제자사랑, 학우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기금은 장학기금과 사회봉사기금으로 나뉜다. 기부자는 기금을 선택할 수 있다. 장학기금은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기금, 그리고 사회봉사기금은 경희사회봉사기금과 경희의료봉사기금으로 지정이 가능해 기부자가 원하는 목적으로 기금이 운용된다. 온라인 상에서 기부자와 수혜자가 서로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기부문화가 이어지도록 캠페인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2010년 10월 19일, 홈페이지(<http://magnolia.khu.ac.kr>)를 열어 소액기부 캠페인을 펼쳐온 결과, 현재(2013.5.31)까지 23억 8천만여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

Interview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금, 사랑의 열매이자 사명감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금
첫 수혜자

연극영화학과 11학번
임정빈

2012년 첫 번째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금 수여식에서 국제교정 장학생 대표로 감사의 글을 낭독했던 임정빈 양이 밝힌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금에 대한 의미는 '사랑의 열매이자 사명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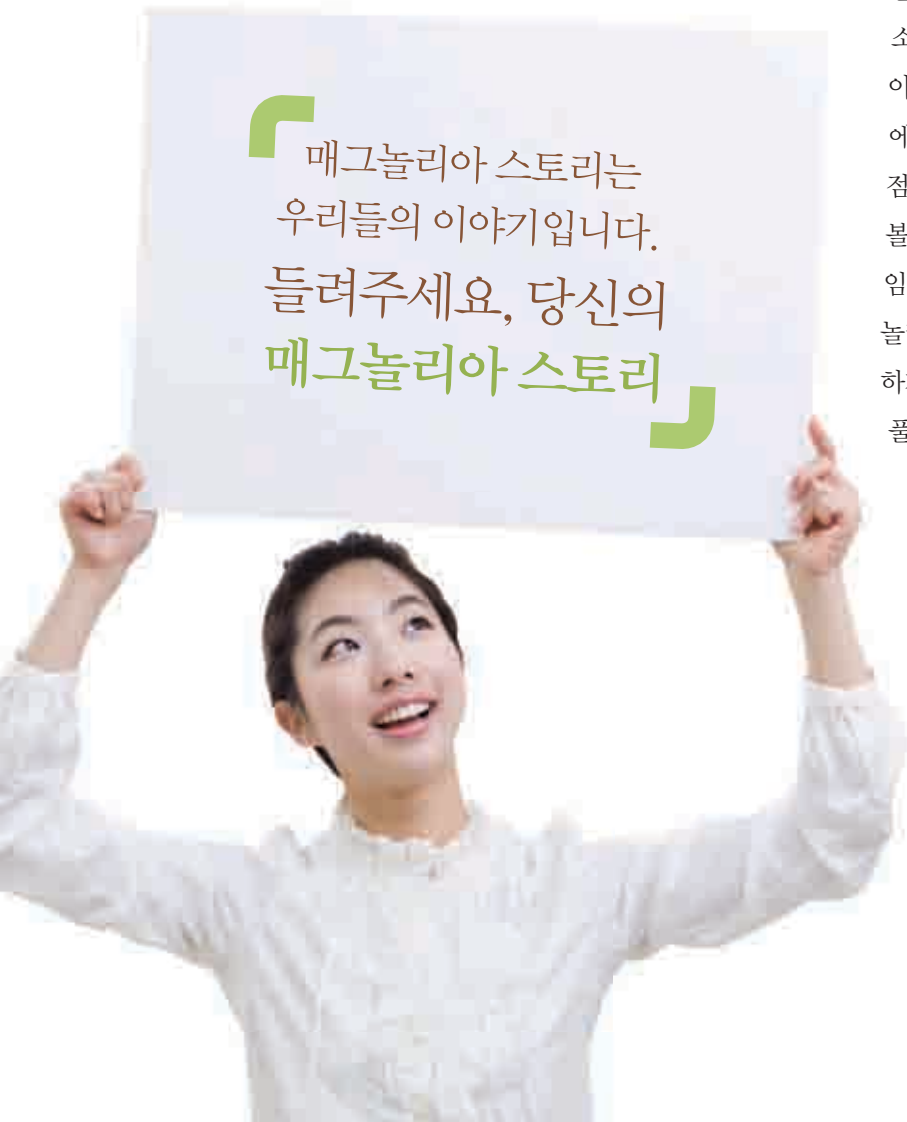
우리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임정빈 양은 지난해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금 첫 수혜자로 선정됐다. 그녀는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의 의의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이 받은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반드시 후배들에게 전해주고자 했기에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임정빈 양은 이번 장학금 수여와 관련해 "따뜻한 목련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며 감사의 말을 이어나갔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을 통해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핌의 손길을 느끼게 됐다. 이번 캠페인은 내게 희망찬 미래와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해 주었다"며 장학금 수혜학생으로 선정된 만큼 그 누구보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여 훗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오늘 날 자신이 받은 감사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매그놀리아스토리 장학기금은 학교가 내게 주는 따뜻한 관심이었다. 그 따뜻함 속에는 희망과 격려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매그놀리아스토리 장학기금을 마련한 이들을 비롯한 경희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전했다.

소액 기부라도 직접 참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을 통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다시 학교에 기부해 오랫동안 행사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임정빈 양의 이러한 생각은 원래 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임정빈 양은 장학금 수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그놀리아 스토리 장학 홍보 모델로 활동하며 재능기부를 실천하기도 했다. 그녀는 "솔직히 후배들에게 다시 따뜻함을 베풀어주는 일은 졸업 후쯤일 것이라고 여겼다. 기부를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학 홍보 모델 제의를 받은 뒤 '아 하느님께서 내게 이런 식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흔쾌히 승낙하게 됐다"며 재능기부를 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제 3학년이 된 임정빈 양은 "2년 남은 학교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 프로 무대에 설 수 있게 준비된 사람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며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배우가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들려주세요, 당신의
매그놀리아 스토리

Column

돈으로 할 수 있는 행복,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참여추진
김효진 단장

돈이나 명예가 아니다. 그것은 '기부'다.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기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중 하나가 아닐까? 돈으로 명품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은 단 1초도 살 수가 없다. 기부는 돈으로 하는 것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기부는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면서 큰 보람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질적 부자는 흔히 마주할 수 있지만 돈을 번 만큼 사회에 나누려는 마음을 가진 존경받는 진정한 부자를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차동엽 신부는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에서 '손바닥 안에 주어진 것에서 풍요를 만끽할 줄 모르면, 우주를 소유한들 배고픔은 여전한 것이다'라며, 부를 향한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기에 '부'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했다. 한동철 부자학연구학회장은 진정한 부자에 대해 '정신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물질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했다.

기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

'자부심을 생기게 하는 것'

'주변 사람에게 꼭 권유하고 싶은 것'

내가 만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은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남들보다 못한 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두세 배 노력을 해서 사업을 일구고, 숱한 위기 속에서도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어 이제 사회로부터 대접도 받고 부를 이루었지만 무언가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고, 살아온 생을 되돌아보면서 한 번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남기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에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5년 전, 아너 소사이어티를 출범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액기부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가족, 혈연 중심으로 부의 세습을 당연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큰돈을 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정신·물질·사회적 가치의 3박자를 갖춘 품격 있는 부자들이 계속해서 나눔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부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등 기부인식과 환경이 좋아졌다는 점은 대학을 비롯해 기부금이 필요한 기관과 단체에서 개인 고액기부프로그램을 잘 기획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눔은 타인과 사회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내 인생 의미있게 잘 살았다'는 훈장 같은 자부심과 행복감을 준다. 이러한 나눔의 정신이 하나 하나 엮이다 보면 우리사회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눔을 통해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나눔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품격있고 행복한 부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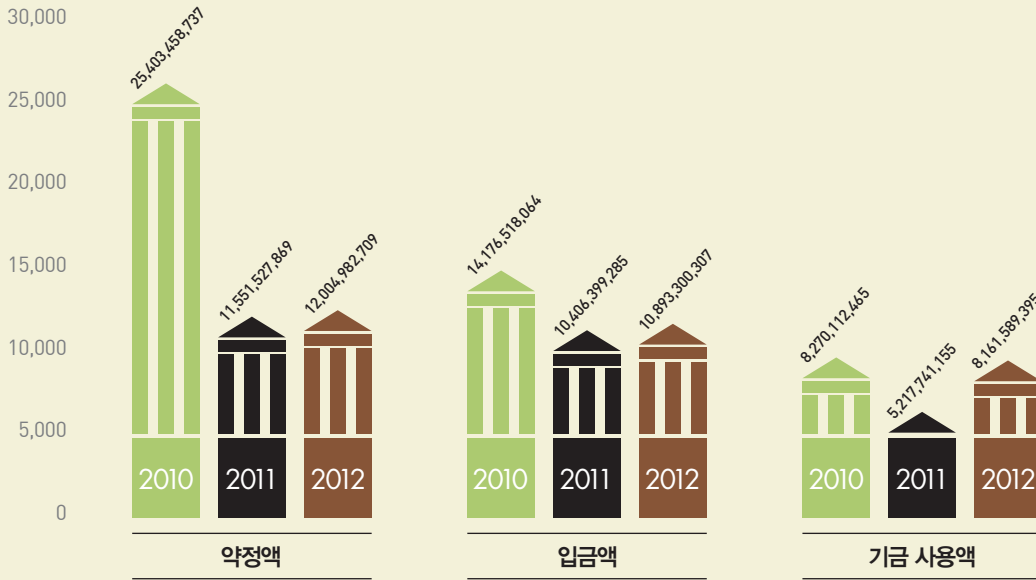
· 발전기금현황

전기에너지위원회 전기에너지사업자간



최근 3년간 발전기금 조성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약정액	입금액	기금 사용액
2010학년도	25,403,458,737	14,176,518,064	8,270,112,465
2011학년도	11,551,527,869	10,406,399,285	5,217,741,155
2012학년도	17,551,527,869	12,406,399,285	6,217,741,155

단위: 원



발전기금 이렇게 쓰였습니다

기부자님께서 기부하신 발전기금은 대학의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 장학금, 우수교원 초빙, 우수학생 유치,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연구비, 기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기부자님의 기부 목적에 맞게 발전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내부 기준(발전기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 사용 시 지정

된 단위부서(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등) 구성원들의 기금 사용에 대한 합의를 통해 발전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역은 2012학년도 중 사용된 발전기금의 내역입니다. 해당기간 중 사용되지 않은 기금은 단위부서 및 학교 발전계획에 맞춰 기부자께서 지정하신 용도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외협력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명	금액(단위: 원)	사용내역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장학기금	11,100,000	장학금 지원
간호과학대학 교수장학	5,000,000	장학금 지원
간호과학대학 김윤희장학	1,000,000	장학금 지원
간호과학대학 손옥순장학	6,000,000	장학금 지원
간호과학대학 조미영장학	500,000	장학금 지원
경영대학 경영전공기금	5,756,500	연구사업 지원
경영대학 기금	19,773,280	동문회행사 지원, 장학금 지원
경영대학 장학기금	10,000,000	장학금 지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장학기금	1,000,000	장학금 지원
경영대학원 기금	6,564,000	총동문회행사 지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기금	2,637,760	졸업전시회(미석전) 지원
공과대학 건축학과기금(이두열 장학)	1,800,000	장학금 지원
공과대학 장학기금	2,500,000	장학금 지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기금(장학)	3,000,000	장학금 지원
공과대학 환경학과기금	6,000,000	장학금 지원
관광대학원 기금	4,290,000	장학금 지원
교양학부(서울)기금	25,000,000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국 고등학생 온라인 11 토론대회 지원
국제·경영대학 기금	10,045,000	장학금 지원
국제대학 국제학과기금(장학)	1,000,000	장학금 지원
국제대학기타기금 운용수입	2,364,330	연구사업 지원
국제대학원 운영기금(별도예산)	20,000,000	연구사업 지원
글로벌에미언스기금	2,616,717,117	연구사업 지원
덕산 이간수장학기금	14,400,000	장학금 지원
동서신의학병원 연구기금	13,370,390	연구사업 지원
동서의학대학원 기금	2,000,000	장학금 지원
동서의학대학원 동서의과학과 생리학전공기금	6,000,000	장학금 지원
동서의학대학원기타기금 운용수입	48,855,000	장학금 지원
문과대학 국문과기금	20,000,000	춘계정기 학술답사 지원
문과대학 국문과동문장학기금	7,630,000	장학금 지원
문과대학 국문과한문장학기금	3,999,920	고전문학 답사 지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장학기금	1,130,000	장학금 지원
문과대학 사학과장학기금	11,810,000	장학금 지원
문과대학 영어학부장학기금	1,080,000	장학금 지원
문과대학 조세희장학기금	5,000,000	장학금 지원
문과대학 철학과장학기금	500,000	장학금 지원
미래문명원(네오르네상스)장학기금	147,200,000	장학금 지원
미술대학 미술학부기금	5,600,000	교육환경개선 지원
미술대학 장학기금	1,000,000	장학금 지원
법과대학 법학과기금	75,838,150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국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고시부 동문장학금 지원
법과대학 사법고시생준비기금	67,748,950	사법고시 준비학생 지원
법과대학 자율예산기금	45,418,945	법전원 진학준비반지원, 팀장스터디 지원

기금명	금액(단위: 원)	사용내역
법과대학 장학기금	13,400,000	장학금 지원
법학연구소 기금	16,261,850	연구사업 지원
법학전문대학원 기금	39,000,000	장학금 지원
법학전문대학원 남관장학기금	13,000,000	장학금 지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기금	27,500,000	장학금 지원
비폭력연구소기금	5,266,420	연구사업 지원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기금	1,812,160	오투기재단 장서 지원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 간염백신신소재개발연구기금	50,000,000	간염 백신소재 개발 연구 지원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기금(장학)	5,000,000	장학금 지원
생명과학대학 장학기금	2,000,000	장학금 지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기금	13,004,442	연구사업 지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장학기금	2,727,000	장학금 지원
서정법장학기금	3,240,000	장학금 지원
약학대학 약과학과 장학기금	2,500,000	장학금 지원
약학대학 약학과 장학기금	2,500,000	장학금 지원
약학대학 장학기금	19,165,000	장학금 지원
약학대학 한약학과장학기금	2,500,000	장학금 지원
언론정보대학원 장학기금	2,000,000	장학금 지원
연구센터기금(식물대사연구센터)	14,000,000	연구 및 기자재 지원
예술.디자인대학 도예학과기금(장학)	1,200,000	장학금 지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과기금	500,000	장학금 지원
예술.디자인대학 시각정보디자인학과기금(장학)	1,400,000	장학금 지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기금(장학)	3,500,000	장학금 지원
예술.디자인대학 의류디자인전공기금(장학)	1,000,000	장학금 지원
예술.디자인대학 포스트모던음악전공기금	6,000,000	장학금 지원
예술.디자인대학 포스트모던음악전공기금(장학)	1,000,000	장학금 지원
예술.디자인대학 환경조경디자인전공기금	5,000,000	장학금 지원
예술.디자인대학 환경조경디자인전공기금(김광래장학)	2,000,000	장학금 지원
예술.디자인대학 환경조경디자인학과기금(장학)	29,950,000	장학금 지원
외국어대학 스페인어학과기금(장학)	6,000,000	장학금 지원
외국어대학 일본어학과기금	5,000,000	장학금 지원
외국어대학 장학기금	4,500,000	장학금 지원
외국어대학 중국어학과기금(장학)	1,000,000	장학금 지원
원더스기금	7,585,000	장학금 지원
윤도준장학	10,000,000	장학금 지원
음악대학 기악과장학기금	700,000	장학금 지원
음악대학 성악과기금	2,613,200	해외우수 성악가 초청 강연회 지원
응용과학대학 기금	21,196,000	전공체험 프로그램 지원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기금	10,000,000	우주과학캠프 지원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기금(장학)	1,620,300	장학금 지원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기금(장학)	550,000	장학금 지원
응용과학대학 장학기금	2,750,000	장학금 지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교실기금	7,290,000	실험실습 지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기금	11,896,500	실험실습 지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기금	8,000,000	실험실습 지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기금	10,000,000	실험실습 지원
의과대학 비포장학	10,000,000	장학금 지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교실기금	3,000,000	실험실습 지원
의과대학 의학과기금	19,894,000	해외 의학자 연수 프로그램 지원, 장학금 지원
의과대학 의학과장학기금	88,500,000	장학금 지원
의과대학 해부신경생물학교실기금	3,200,000	실험실습 지원
의과대학 후배사랑장학기금	2,000,000	장학금 지원
의과대학 NH장학기금	4,000,000	장학금 지원
이과대학 김옥기장학	5,404,000	장학금 지원
이과대학 물리학과장학기금	3,500,000	장학금 지원
이과대학 정보디스플레이학과기금	15,000,000	2012학년도 Lgenius Program 지원
이과대학 지리학과장학기금	1,000,000	장학금 지원
이과대학 화학과장학기금	2,000,000	장학금 지원
일반대학원 언론정보학부기금	1,823,300	연구사업 지원
일반대학원 의학과장학기금	20,547,000	장학금 지원
일반대학원 장학기금	48,478,500	장학금 지원

기금명	금액(단위: 원)	사용내역
일반대학원 장학기금(국제캠)	3,000,000	장학금 지원
일반대학원 정디(우치케)장학기금	6,000,000	장학금 지원
일반대학원 토목건축학과기금(김선국CM장학)	38,883,000	장학금 지원
일반대학원 한방재료가공학과기금(장학)	19,547,000	장학금 지원
일반대학원 한의학과장학기금	3,000,000	장학금 지원
입학사정관 장학기금	4,800,000	장학금 지원
장학기금 (서울)	2,668,102,792	장학금 지원
장학기금(국제캠)	601,898,150	장학금 지원
장학기금(이상만)국제캠	10,000,000	장학금 지원
장학기금(재직동문화)국제캠	4,000,000	장학금 지원
전영원김인숙 장학기금	5,245,437	장학금 지원
전자정보대학 기금	48,372,700	대형전산실합실습실 구축 지원
전자정보대학 생체의공학과기금(장학)	2,000,000	장학금 지원
전자정보대학 생체의공학과기금(한승무장학)	30,000,000	장학금 지원
전자정보대학 장학기금	2,000,000	장학금 지원
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과기금(장학)	1,000,000	장학금 지원
전자정보대학 컴퓨터공학과기금(장학)	18,000,000	장학금 지원
정경대학 무역학과 기금	24,000,000	한국무역협회 연구사업 지원
정경대학 무역학과장학기금	4,500,000	장학금 지원
정경대학 사회학과기금	1,000,000	한국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 지원
정경대학 언론정보학부기금	77,566,047	연구사업 지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장학기금	1,000,000	장학금 지원
졸업생준비기금	6,350,000	장학금 지원
중앙도서관기금	4,986,000	연구사업 지원
체육대학 장학기금	2,000,000	장학금 지원
체육대학 태권도학과기금(장학)	7,000,000	장학금 지원
체육대학원 장학기금	9,500,000	장학금 지원
최상진장학기금	1,200,000	장학금 지원
취업진로지원처 기금	2,000,000	장학금 지원
취영루장학기금	3,437,225	장학금 지원
치과대학 기금	10,965,350	학부모 초청 간담회 지원
치과대학 자율예산기금	25,956,240	교육환경 개선 지원
치과대학 장학기금	26,000,000	장학금 지원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기금	3,300,000	치과교정학교실 임상중례집 발간 지원
캠퍼스열린예배장학기금	1,000,000	장학금 지원
한국아동문학연구센터기금	10,969,740	제22회 방정환 문학상 행사, 제1회 이재철 아동문학평론상 지원
한외과대학 기금	150,605,533	OPEM 국제학술지 지원, 연구사업 지원
한외과대학 생화학교실기금	4,578,787	연구사업 지원
한외과대학 심계내과기금	26,743,980	연구사업 지원
한외과대학 안이비인후과교실기금	1,822,940	연구사업 지원
한외과대학 연구기금	10,000,000	연구사업 지원
한외과대학 예방의학교실기금	19,774,000	연구사업 지원
한외과대학 의학교실기금	1,499,500	연구사업 지원
한외과대학 장학기금	38,500,000	장학금 지원
한외과대학 해부학교실기금	8,724,921	연구사업 지원
한외대 장학기금	30,000,000	장학금 지원
한인하장학기금	2,993,959	장학금 지원
현대미술연구소기금	10,140,200	DMZ 국제평화레지던시 행사 지원
호텔관광대학 장학기금	3,000,000	장학금 지원
호텔대 관광경영학과장학기금	6,554,000	장학금 지원
호텔대 외식경영학과장학기금	3,000,000	장학금 지원
호텔대 조리서비스경영학과장학기금	2,727,000	장학금 지원
호텔대 컨벤션경영학과장학기금	7,200,000	장학금 지원
호텔대 호텔경영학과장학기금	1,000,000	장학금 지원
후마니타스칼리지(국제) 자율전공학부 기금	3,600,000	장학금 지원
후생복지관련사업기금	19,800,000	총학생회 다이어리 지원
Global Eminence BK기금	56,100,000	Peace BAR Festival 2012 지원
GSC기금	3,979,000	GSC 몽골해외봉사단 지원
NGO대학원인턴쉽프로그램기금	190,961,880	NGO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ROTC장학기금	3,600,000	장학금 지원

명예의 전당

“경희를 밝히는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이 봉 관 <small>(주)서희그룹 회장 상학과 64학번</small>	이 건 수 <small>(주)동아일렉콤회장 정치외교학과 60학번</small>	김 연 수 <small>김한의원 원장 한의학과 66학번</small>	심 태 식 <small>前 경희대학교 총장</small>	신 준 식 <small>자생한방병원 이사장 한의학과 82학번</small>	서 길 용 <small>예술디자인대학 명예교수</small>	최 태 섭 <small>한국유리공업(주) 명예회장</small>	전승우, 전수연, 전수원
조세희, 전석분 <small>조현준(영문 87학번) 동문 부모</small>	윤 도 준 <small>(주)동화약품 회장 의학과 72학번</small>	박 상 동 <small>동서한방병원 원장 겸 이사장/한의학과 62학번</small>	문 주 현 <small>(주)MDM 대표이사 회계학과 83학번</small>	구 자 명 <small>LS-Nikko동제(주) 대표이사 부회장</small>	한 승 무 <small>전자정보대학 교수</small>	김 복 순	심 태 봉
김 선 국 <small>공과대학 교수</small>	정 학 모 <small>前 LG스프츠 대표이사 체육학과 81학번</small>	안 흥 철 <small>홍일한의원 원장 한의학과 63학번</small>	조 성 태 <small>아카데미한의원 원장 한의학과 74학번</small>	이 상 만 <small>산업정보대학원 99학번</small>	이 송 <small>서울성상병원 원장 의학과 74학번</small>	이 병 하 <small>신성대학 총장 경제학과 63학번</small>	최 희 용 <small>창강애드 대표이사 미술교육학과 72학번</small>
박 종 기 <small>前 외교통상부 덴마크 대사</small>	류 재 환 <small>동서이화대학원 교수 한의학과 74학번</small>	김 말 애 <small>예술디자인대학 무용학부 교수 무용학과 67학번</small>	장 진 <small>이과대학 교수</small>	정 종 태 <small>지테크개발(주) 대표이사 정치외교학과 76학번</small>	최 원 철 <small>한인과학 교수 대학원 한의학과 88학번</small>	이 계 탁 <small>前 행정대학원 교수</small>	서 정 섭 <small>(주)동신관광공업 대표이사 법률학과 58학번</small>
김 장 훈 <small>연예인(가수)</small>	손 재 식 <small>평화복지대학원 명예관장</small>	이 창 진 <small>거제고문치과 원장 치위학과 84학번</small>	윤 진 섭 <small>레이크힐스 골프&리조트 회장 정치외교학과 66학번</small>	정 동 성 <small>여주대학 설립 이사장 체육학과 58학번</small>	한 표 옥 <small>前 평화복지대학원 교수</small>	김 정 만 <small>호남관광대학 교수 정치외교학과 74학번</small>	김 고 성 <small>홍진메이론 회장 경영대학원 62학번</small>
이 태 원 <small>의과대학교수 의학과 74학번</small>	송 동 효 <small>(주)동영이엔지 회장</small>	청강 김영훈 <small>근현대한의학개척자 주황실의전의</small>	김 기 수 <small>전도로투감대사 LA총영사</small>	현 경 선 <small>간호과학대학 교수 간호학과 68학번</small>	안 영 자	전 병 익 <small>정암녹화 대표 조경학과 70학번</small>	
김 옥 기 <small>물리학과 66학번</small>	정 종 섭 <small>(주)다림바이오텍 대표이사 약학과 67학번</small>	박 성 규 <small>기초한의학과 교수 한의학과 81학번</small>	변 정 우 <small>호철관광대학 교수 전자공학과 80학번</small>	김 병 운 <small>유성담한의원 원장 한의학과 62학번</small>	강 용 구 <small>한성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small>	김 경 속 <small>체육대학 객원교수</small>	유 영 주 <small>前 생활과학대학 교수</small>
임 재 환 <small>故 임진섭 교수 유가족</small>	오 세 덕 <small>前 사회과학부 교수 정치외교학과 57학번</small>	곽 약 훈 <small>곽차과의원 원장 치위학과 75학번</small>	김 광 주 <small>前 간호과학대학 교수</small>	차 봉 오 <small>차한의원 원장 한의학과 53학번</small>	김 진 우 <small>의과대학 교수 의학과 69학번</small>	影山英之 <small>奥羽大學 理事長</small>	박 명 속 <small>예술디자인대학 무용학부 교수</small>
김 혜 정 <small>해정박물관 관장</small>	김 용 건 <small>포스코</small>	이 재 광 <small>현대치과 원장 치위학과 73학번</small>	김 병 목 <small>前 경희대학교 총장 법률학과 64학번</small>	정 태 류 <small>정대류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학과 58학번</small>	김 화 례 <small>예술디자인대학 무용학부 교수</small>	최 재 영 <small>(주)기벌INC 대표이사 경영학과 72학번</small>	박 용 구 <small>의과대학 교수 의학과 73학번</small>
박 순 영 <small>의과대학 명예교수</small>	김 봉 기 <small>네트나우한의원 원장 한의학과 62학번</small>	김 운 호 <small>공공대학원교수 경영76</small>	조 유 정 <small>의과대학 명예교수 생물학과 61학번</small>	김 용 <small>김용한의원 원장 한의학과 72학번</small>	김 영 설 <small>의과대학 교수 의학과 67학번</small>	한 기 태 <small>故 한병구 교수 유가족</small>	우 정 택 <small>의과대학 교수 의학과 77학번</small>
강 현 속 <small>간호과학대학 교수</small>	김 윤 희 <small>간호과학대학 명예교수</small>	김 원 옥 <small>간호과학대학 교수 간호학과 68학번</small>	고 창 업 <small>서원아업 대표 토목공학과 74학번</small>	이 순 국 <small>대림제약(주) 대표 상학과 67학번</small>	박 성 우 <small>경희보궁한의원 원장 한의학과 96학번</small>	김 동 극 <small>(주)국동보석 회장 정치외교학과 66학번</small>	김 진 영 <small>중앙도서관장</small>
송 태 진 <small>(주)원정재관회장 법학과 56학번</small>	조 규 석 <small>의과대학 교수 의학과 68학번</small>	이 향 련 <small>간호과학대학 교수</small>	강 대 현 <small>(주)월드비 대표이사</small>	박 중 립 <small>체육대학원 동문</small>	김 중 영 <small>(주)씨맥스대표 정치외교학과74학번</small>	신 재 경 <small>물리학과 81학번</small>	
충동문화	여성동문화	경희방송 예술인클럽	의과대학 동문화	간호과학대학 동문화	경희대직원 일동	경영대학 동문화	일본성도교단
치과대학 동문화	법과대학 양진후원회	밝은사회 목련클럽	음대발전 추진위원회	법과대학 동문화			



Hall of Fame

“경희를 밝히는 아름답고 고귀한 뜻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2012 발전기금 약정자

1억 원 이상

- 개인** 김권삼 | 이건수
- 기업 및 개인사업자** (주)대원고속 | 메가스터디(주) | 삼성전자(주)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 김벌리클라크이노베이션(주)
- 단체 및 동문회** 경희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서울장학재단

5천만 원 이상

- 개인** 김도희 | 김명곤 | 김선국 | 김수중 | 김우식 | 김 원 | 김중배 | 김진배 | 허만희 | 현경선
- 기업 및 개인사업자** (주)GS홈쇼핑 | 교보문고 | 엘아이지손해보험
- 단체 및 동문회** 농어촌희망재단 | 사회복지법인미래에셋박현주재단 | 우덕재단 | 재단법인 상록

1천만 원 이상

- 개인** 강효백 | 구현주 | 권영욱 | 권혁란 | 김나연 | 김병린 | 김성운 | 김수만 | 김웅시 | 김정만 | 김정화 | 김종호 | 김진영 | 김진우 | 김한상 | 김홍기 | 남순건 | 노주현 | 문주현 | 박삼문 | 박용구 | 박창건 | 박현일 | 소재선 | 송유례 | 신경주 | 신재경 | 신태일 | 안덕균 | 안영훈 | 안옥모 | 안진홍 | 양덕춘 | 오세영 | 오연석 | 오하식 | 오해숙 | 유성희 | 유철호 | 이상만 | 이상목 | 이상언 | 이상희 | 이윤진 | 이은태 | 이인석 | 이희주 | 인경수 | 임새비나 | 장경은 | 장소영 | 장 진 | 정경천 | 정라나 | 정환용 | 조규석 | 조복희 | 조성태 | 조윤제 | 조현명 | 조희찬 | 좌승호 | 차균호 | 최재영 | 최정혜 | 황원주
- 기업 및 개인사업자** (주)포항스틸러스 | (주)Afternoon Tea | (주)강원도민프로축구단 | (주)다림양행 | (주)두타연 | (주)모두투어네트워크 | (주)산하 | (주)삼에스코리아 | (주)센트럴시티 | (주)신우솔텍 | (주)신한은행 | (주)에코마케팅 | (주)위드유엔입 | (주)인터컴 | (주)체스투어즈 | (주)티핑포인트프로듀스 | (주)KT | 국민은행 신매단지점 | 국민은행 이문동지점 | 삼성전기(주) | 소람한의원 | 에프에스매니지먼트 | 용남고속(주) |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주식회사 | 주식회사 하나은행 | 주식회사 현대이엔지 | 청암녹화 | 최재민소아청소년과의원 | 케이티텔레캅
- 단체 및 동문회** (재)현대차정몽구재단 | 2012년3급생활체육지도자일동 |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동문회 |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9기 황해종 외 15인 | 경희대학교법과대학동문회 | 고촌재단 | 구원장학재단 | 대웅재단 | 동부문화재단 | 문주장학재단 | 방송문화진흥회 | 삼성꿈장학재단 | 삼성복지재단 | 신라문화장학재단 | 아산사회복지재단 | 인촌기념회장학 | 일주학술문화재단 | 정수장학재단 | 캠퍼스 열린예배 | 태성장학회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 현곡장학재단

1천만 원 미만

- 개인** 강영빈 | 강경숙 | 강경식 | 강경호 | 강규민 | 강극영 | 강나훈 | 강도영 | 강동구 | 강동원 | 강명자 | 강명호 | 강미연 | 강 민 | 강민우 | 강민정 | 강민지 | 강민진 | 강보라 | 강선아 | 강선희 | 강성우 | 강성호 | 강세현 | 강수민 | 강순영 | 강승연 | 강승진 | 강아름 | 강원민 | 강윤정 | 강은별 | 강인원 | 강재희 | 강정길 | 강준권 | 강지숙 | 강지혜 | 강진형 | 강창동 | 강창수 | 강한신 | 강현만 | 강현우 | 강화연 | 강희석 | 강희원 | 경야네스 | 경주현 | 경현우 | 고광덕 | 고대원 | 고동섭 | 고병호 | 고보경 | 고봉중 | 고승정 | 고장석 | 고재윤 | 고정한 | 고종화 | 고진솔 | 고하나 | 고행호 | 고혜원 | 곽정강 | 공건식 | 공소혜 | 공우석 | 곽명진 | 곽민지 | 곽슬아 | 곽영룡 | 곽영태 | 곽주원 | 곽희용 | 구경민 | 구교섭 | 구기동 | 구덕모 | 구병모 | 구본승 | 구영준 | 구용모 | 구은자 | 구자성 | 구지춘 | 구지영 | 구철모 | 구혜정 | 국수호 | 권경훈 | 권기선 | 권기하 | 권기환 | 권난현 | 권다미 | 권미신 | 권보근 | 권설아 | 권성언 | 권순용 | 권순형 | 권승욱 | 권승혁 | 권아영 | 권영상 | 권영훈 | 권오복 | 권오재 | 권용주 | 권용호 | 권은정 | 권은혜 | 권장혁 | 권재열 | 권주혁 | 권진경 | 권택영 | 권혜숙 | 권혜승 | 금은영 | 기명간 | 기유미 | 김가연 | 김건식 | 김건우 | 김건욱 | 김경석 | 김경선 | 김경수 | 김경원 | 김경태 | 김경희 | 김계숙 | 김계진 | 김고운 | 김공수 | 김광구 | 김광국 | 김광도 | 김광수 | 김광일 | 김규리 | 김규태 | 김근영 | 김근화 | 김금지 | 김기쁨 | 김기홍 | 김나연 | 김나예 | 김남위 | 김남희 | 김다영 | 김다정 | 김다혜 | 김단희 | 김대경 | 김대섭 | 김대호 | 김 덕 | 김덕곤 | 김도균 | 김도영 | 김도원 | 김도윤 | 김도훈 | 김동건 | 김동규 | 김동근 | 김동석 | 김동연 | 김동엽 | 김동욱 | 김동한 | 김동호 | 김동환 | 김동훈 | 김두형 | 김득만 | 김란희 | 김래영 | 김률화 | 김만기 | 김만수 | 김명균 | 김명근 | 김명락 | 김명의 | 김명자 | 김문규 | 김미경 | 김미라 | 김미연 | 김미영 | 김미은 | 김미정 | 김미진 | 김미한 | 김 민 | 김민석 | 김민식 | 김민아 | 김민재 | 김민주 | 김민지 | 김민채 | 김배한 | 김범식 | 김병로 | 김병욱 | 김병우 | 김보미 | 김보성 | 김보현 | 김보환 | 김보훈 | 김부휘 | 김비비 | 김상경 | 김상민 | 김상빈 | 김상연 | 김상준 | 김상훈 | 김석현 | 김선미 | 김선수 | 김선욱 | 김선중 | 김성국 | 김성민 | 김성수 | 김성용 | 김성윤 | 김성중 | 김성진 | 김성태 | 김성호 | 김성희 | 김소연 | 김소영 | 김소현 | 김수덕 | 김수민 | 김수빈 | 김수연 | 김수영 | 김수정 | 김수중 | 김수진 | 김수현 | 김슬기 | 김승겸

1천만 원 미만

개인

김승찬	김시은	김 신	김신형	김아름	김애실	김여수	김연경	김연수	김연승	김영권	김영란	김영린	김영민	김영석
김영오	김영중	김영채	김영태	김영훈	김예솔	김예영	김예주	김예희	김옥지	김용겸	김용상	김용석	김용완	김용희
김우중	김우황	김욱균	김운호	김 원	김원옥	김원종	김원희	김유경	김유라	김유빈	김유성	김유수	김윤나	김윤아
김윤화	김윤희	김은미	김은석	김은아	김은영	김은주	김은지	김은철	김은하	김은화	김은환	김은희	김이준	김인수
김인자	김인환	김일현	김자현	김장수	김재욱	김재원	김재호	김재환	김재효	김정래	김정목	김정미	김정수	김정연
김정현	김정호	김정화	김정훈	김정희	김종근	김종민	김종범	김종선	김종엽	김종완	김종원	김종찬	김종철	김주형
김주훈	김준수	김준영	김준원	김준홍	김중섭	김지민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윤	김지화	김지희	김진균
김진영	김진의	김진주	김진홍	김진희	김창목	김창수	김창은	김창주	김창헌	김천년	김철원	김철림	김태구	김태리
김태식	김태은	김태정	김태현	김태형	김태희	김평근	김하경	김하나	김학두	김학민	김학정	김한길	김한나	김하나
김한영	김한원	김한일	김항진	김해균	김해진	김 혁	김혁규	김 현	김현경	김현규	김현동	김현수	김현우	김현일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형규	김형섭	김형준	김혜경	김혜란	김혜림	김혜빈	김혜선	김혜인	김혜정	김혜진	김혜현
김호운	김호재	김호진	김홍률	김화영	김효림	김효수	김효영(효성한의원)	김효중	김효진	김후경	김훈식	김홍대	김희강	
김희기	김희상	김희석	김희승	김희찬	김희환	나경진	나다연	나병우	나승연	나영걸	나인섭	나호준	남미선	남기선
남기영	남기원	남도엽	남무길	남소영	남송은	남승우	남승희	남영수	남윤경	남윤재	남지숙	남종우	남혜승	노광숙
노대현	노동섭	노두식	노상균	노상훈	노시학	노은영	노정훈	노준호	노형은	단세리	도예성	도하윤	도형우	동석호
라승천	라제현	류나연	류다연	류석진	류수지	류인수	류재정	류종훈	마석원	마현희	맹만섭	맹원모	맹재득	목경열
묘우철	문영주	문영우	문종택	문주영	문준수	문중원	문항란	문혜림	문호빈	문희경	문희영	민관동	민무홍	민선영
민성원	민여련	민영선	민인식	박경규	박경연	박경원	박관주	박광현	박규창	박균성	박균열	박기유	박기홍	박동규
박동연	박동영	박무원	박문선	박미라	박미리	박미선	박미애	박미원	박미정	박민우	박민희	박병진	박병철	박사윤
박상미	박상민	박상수	박상식	박상철	박상현	박서익	박선경	박선영	박성규	박성민	박세용	박소라	박소연	박수경
박수인	박수진	박수현	박순복	박승진	박승환	박시연	박시홍	박신애	박신우	박아현	박영민	박영식	박영은	박옥심
박왕용	박왕홍	박왕희	박우민	박왕덕	박 원	박원갑	박원서	박원영	박유진	박윤근	박은규	박은진	박은혜	박은희
박인영	박일완	박일우	박일진	박재두	박재성	박재양	박재현	박정미	박정수	박정애	박정열	박정은	박정호	박종국
박종률	박종립	박종섭	박종원	박종찬	박종화	박주영	박주현	박주홍	박주희	박준규	박준상	박준혁	박종근	박종림
박지연	박지은	박지현	박진솔	박진영	박진철	박진하	박창범	박철승	박초롬	박태기	박한규	박한균	박한빛	박한송
박한국	박현수	박현정	박현주	박현준	박혜민	박혜주	박홍렬	박홍정	박훈배	반건호	방기성	방성혜	방수현	방준욱
방하나	배정기	배정환	배지인	배지현	배진우	배태수	배찬철	배형찬	백남옥	백남환	백동엽	백미선	백민영	백민철
백성욱	백소영	백소진	백수철	백승선	백연수	백은주	백정기	백중연	백주미	백지연	백현숙	백형환	변민경	변상현
변 승	변재구	변정우	변지윤	변혜원	변희정	부봉훈	부지연	사계절	서경진	서경화	서계영	서규훈	서다희	서 랑
서명훈	서명희	서문영	서미경	서민성	서상규	서소정	서소희	서연경	서연진	서영자	서예지	서원교	서유나	서인숙
서자욱	서장원	서정덕	서정섭	서정아	서정원	서중식	서주현	서지민	서태원	서한영	서현선	서형심	서혜진	서효원
서효은	석정인	선효숙	설다영	설미현	설민규	설시진	설인환	성동욱	성민정	성시우	성 신	성은정	성호태	성희진
소호섭	손경진	손기숙	손명성	손백현	손소희	손영수	손은영	손재웅	손정원	손종근	손주락	손주원	손주홍	손현아
손형민	송기을	송길용	송명진	송미경	송민지	송병권	송석원	송선영	송성원	송수연	송용범	송유나	송유리나	송윤희
송은규	송정은	송재현	송지연	송지은	송창석	송창락	송태진	송현수	송현주	송형석	송혜경	송호남	송영욱	신경화
신동재	신명철	신문규	신미정	신민자	신범영	신병철	신병희	신선영	신성은	신수남	신 연	신용섭	신용수	신용식
신우단	신우철	신원전	신유정	신은경	신은주	신승범	신익근	신인상	신재욱	신정민	신주희	신중호	신지애	신진아
신한식	신현숙	신현운	신혜숙	신혜원	신혜준	신혜진	신호균	신홍철	신희남	신희연	신희정	심규영	심기성	심우영
심지연	안덕근	안범철	안상우	안상일	안상훈	안선영	안선희	안성택	안성흠	안소연	안수진	안연수	안영환	안영호
안재욱	안재하	안재형	안정은	안찬민	안창일	안초홍	안현민	안형준	안혜령	안혜신	안혜영	안효경	아마나카	아키코
양두연	양수진	양승진	양은미	양은진	양인수	양정분	양정수	양정임	양제연	양종석	양주노	양주영	양호진	양효석
어승연	어혜림	엄두영	엄신홍	엄원섭	엄채윤	여수정	연나현	염상국	염이슬	염진철	염학기	오길중	오길창	오나선
오단비	오동건	오동재	오미선	오민지	오상훈	오석란	오성택	오수윤	오수정	오승욱	오승윤	오승주	오영석	오윤자
오은혜	오인환	오재민	오정숙	오지영	오지원	오지은	오지훈	오창환	오택열	오현경	오현정	오현주	오형우	오혜경
오홍식	오희선	옥도훈	왕은영	왕중권	왕미경	우민경	우보람	우석현	우수연	우승영	우예지	우정택	우재규	우주영
우혜린	원시태	원영국	원준호	위영복	위혜림	유가혜	유가휘	유광석	유구한	유금훈	유기덕	유기중	유길호	유도현
유명중	유명호	유문화	유병욱	유빛나	유신희	유영선	유영실	유영춘	유예지	유원준	유윤석	유익형	유재룡	유종수
유종열	유종근	유지혜	유철균	유춘호	유태형	유해수	유해인	유해자	유혜인	윤경구	윤경재	윤규영	윤기선	윤기탁

1천만 원 미만

기업 및 개인사업자 (주)골드윈코리아 | (주)국민은행 경희대국제지점 | (주)기산바이오텍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주)대우건설 | (주)대호석유(이승우 대표님) | (주)대흥인텍스 | (주)더난 | (주)동방 인천지점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바스트비전 | (주)바이오테카 | (주)브이피엠시큐리티 | (주)비아로사 | (주)서희건설 | (주)선박무선 | (주)수국 |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 (주)신흥 | (주)쓰리디글로벌 | (주)악어미디어 | (주)에버텍 교역 | (주)인산 | (주)인슈라이프총괄법인보험대리점 | (주)자-씨 코리아 | (주)태영건설 | (주)퍼시픽패키지 | (주)하나투어 | (주)한국지적재산관리기술 | (주)혜영수산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가리봉의원 | 강남구청장학 | 강남푸른정형외과의원 | 거제소방서 | 경희대서점 | 경희병원 | 경희주니어치과의원 | 고내과의원 | 광개토 | 구미공단예치과병원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금산부인과의원 | 김경훈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의원 | 김승국소아과의원 | 김외과의원 | 김태영외과의원 | 김호배외과의원 | 뉴욕 BNS 치과의원 | 담다현 | 대관령황태해장국 | 대한미디어 | 동산콘크리트산업(주) | 듀오 | 드림빌딩(서남영) | 박상호 소아·청소년과의원 | 변상윤정형외과의원 | 본내과의원 | 삼부자갈비 | 삼성화재 | 상록바이오랩 | 송정길내과의원 | 송파김내과의원 | 수원사무기기 | 안중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 어중내과의원 | 에스엠푸드서비스 | 영제의원 | 오스템임플란트(주) | 와이클럽 | 우리관리 | 우리운송(주) | 우정원 빨래방 | 우정원 알파문구점 | 울진군 | 웰니드치과의원 | 유아비인후과의원 | 윤내과의원 | 윤영혜산부인과의원 | 이건내과 | 이종원내과 | 이종연내과의원 | 인천항만공사 | 장무성신경정신과 | 전이비인후과의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제이앤제이 | 주식회사 스톨인슈 | 주식회사 이음스토리 | 지호한방삼계탕 | 청담 구립 어린이집 | 최무수통증클리닉 | 코리아병원 | 키움증권(주) | 하남영상의학과의원 | 하동소방서 | 하이스트 시스템(주) | 한국다우케미칼(주) | 한국방송광고공사 |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한국피아노복원연구소 | 한나산부인과 | 한다디자인 | 해군본부 | 현대영어사(주) | 현대통증의학과의원 | 협성문화재단 | GS25(국제경희점) | KB국민은행 경희대목련지점 | KT&G 경기본부 | KT&G 동대문지점

단체 및 동문회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 (재)케이에스디나눔재단 | (재)한남학술재단 | 간호과학대학 학생회 | 간호사회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 고양Off-Campus 최고위지도자과정 15기 일동 | 관광대학원 | 교육대학원 61대 원우회 일동(김도균 외) | 기계공학과동문회 | 기독교인교회(서울C) | 김기인충문화재단 | 담오장학회 | 대상문화재단 | 대순진리회수색방면 | 도서관자치위원회 | 도예과42회졸업생일동 | 동대문구약사회 | 동대문보육정보센터 단체 | 등롱회장학 | 매원장학재단 | 문화관광글로벌CEO과정 22기 일동(윤광섭 외 19명) | 미래의동반자재단 | 미래인재육성재단 | 복음장학회 | 사학과 민주동문회 | 산학협동재단 | 삼공장학재단 | 삼금문화장학재단 | 삼송장학회 | 생물학과 55회 졸업생 | 선정장학회 | 성남시장학회 | 성옥문화재단 | 성음문화재단 | 송파재단 | 시각정보디자인학과21회졸업생일동 | 심명문화재단 | 아프로에프지장학회 | 엘트웰민초장학재단 | 양진후원회 | 엘지니아스기 | 예은장학재단 | 와이소블리에특별과정 18기 일동(남운성 외 18명) | 우리은행 재직동문회 | 우석문화재단 | 유한재단 | 의송장학회 | 인산장학문화재단 | 일반대학원 무역학과조교일동 | 일본어과동문회 | 재단법인 동진장학연구재단 | 재단법인 선현 | 재단법인 성암베넥스 | 정보디스플레이학과 | 정산장학재단(태광실업) | 중앙도서관 작은음악회 | 천만장학회 | 체육대학원 박사과정원우회 | 총학생회 |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학교실 전공의 일동 | 테크노경영대학원 글로벌교육경영자과정2기동문회 | 테크노경영대학원 녹색산업최고위과정1기동문회 |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8기 원우회 |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39기동문회 | 필정장학재단 | 하림장학재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유리육영회 | 한의과대학 61기 졸업생 일동 | 해성문화재단 | 현대오일뱅크장학사업회 | 홍산장학재단 | 화학과90학번모임 | 후마니타스칼리지 | 흥한재단 | KBS강태원복지재단 | KHAN멘토(OB일동) | PMMA 실용음악학원

후원의 집 노바이탈리아노 | 정성본 경희대점 | 정혜교(코스피치) | 해송

2012 발전기금 입금자

1억 원 이상

개인 김권삼 | 이건수

기업 및 개인사업자 (주)대원고속 | 메가스터디(주) | 삼성전자(주) | 엘에스니고 동제련 주식회사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 케이에이치자산운용 | 김벌리클라크이노베이션 (주)

단체 및 동문회 경희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서울장학재단

5천만 원 이상

개인 김명곤 | 김수중 | 김우식 | 김 원 | 김진배 | 안홍철 | 한승무 | 현경선

기업 및 개인사업자 (주)GS홈쇼핑 | 교보문고 | 엘아이지손해보험

단체 및 동문회 (재)현대차정몽구재단 | 농어촌희망재단롯데장학재단 | 사회복지법인미래에셋박현주재단 | 우덕재단 | 태성장학회

1천만 원 이상

개인 고광수 | 고철수 | 광성희 | 권영욱 | 김도희 | 김병린 | 김선국 | 김수만 | 김정만 | 김종영 | 김종배 | 김진영 | 김진우 | 김한상 | 김홍기 | 노주현 | 문주현 | 박용구 | 송태진 | 신경주 | 신재경 | 신태일 | 안덕균 | 안진홍 | 양덕춘 | 오연석 | 오해숙 | 이상만 | 이상언 | 이운재 | 이윤진 | 이은태 | 이인석 | 이희주 | 임새나 | 장 진 | 정경천 | 정재태 | 정환용 | 조규석 | 조복희 | 조현명 | 조희찬 | 차균호 | 최대균 | 최재영

기업 및 개인사업자 (주)포항스틸러스 | (주)Afternoon Tea | (주)다림양행 | (주)두타연 | (주)모두투어네트워크 | (주)산하 | (주)삼에스코리아 | (주)센트럴시티 | (주)신우솔텍 | (주)신한은행 | (주)에코마케팅 | (주)위드유편입 | (주)티핑포인트프로듀스 | (주)KT 강남구청장학 | 국민은행 신매단지점 | 국민은행 이문동지점 | 삼성전기(주) | 소람한의원 | 에프에스매니지먼트 | 용남고속(주) |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주식회사 | 주식회사 케이티 | 주식회사 하나은행 | 주식회사현대이엔지 | 최재민소아청소년과의원 | 케이티텔레캅

단체 및 동문회 (주)강원도민프로축구단 | 간호과학대학 | 간호학과동문회 |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9기 황해중 외 15인 | 경희대학교법과대학동문회 | 고촌재단 | 구원장학재단 | 대순진리회수색방면 | 대웅재단 | 동부문화재단 | 문주장학재단 | 미래의동반자재단 | 방송문화진흥회 | 삼성꿈장학재단 | 삼성복지재단 | 삼성장학회 | 성음문화재단 | 송파재단 | 신라문화장학재단 | 아산사회복지재단 | 유한재단 | 인촌기념회장학 | 일주학술문화재단 | 재단법인 상록 | 재단법인 성암베닉스 | 정수장학재단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 한영외고 학생일동 | 현곡장학재단 | 홍산장학재단 | 환일고등학교 외 학생일동

1천만 원 미만

개인 강영빈 | 강경숙 | 강경식 | 강경호 | 강규민 | 강규진 | 강극영 | 강나훈 | 강덕현 | 강도영 | 강동구 | 강동원 | 강명자 | 강영호 | 강문자 | 강미연 | 강 민 | 강민우 | 강민정 | 강민지 | 강민진 | 강병민 | 강보라 | 강상윤 | 강선아 | 강선희 | 강성우 | 강성호 | 강세현 | 강수민 | 강순영 | 강승연 | 강승진 | 강아름 | 강영훈 | 강원민 | 강윤정 | 강은별 | 강인애 | 강인원 | 강일모 | 강재식 | 강재희 | 강정길 | 강제상 | 강재은 | 강주희 | 강준권 | 강준모 | 강지숙 | 강지순 | 강지혜 | 강진선 | 강진형 | 강창동 | 강창수 | 강필정 | 강한별 | 강한신 | 강현만 | 강현우 | 강형규 | 강화연 | 강희석 | 강희원 | 경아네스 | 경주현 | 경현우 | 고광덕 | 고권애 | 고대원 | 고범수 | 고병호 | 고병희 | 고보경 | 고봉중 | 고석오 | 고성규 | 고성우 | 고승정 | 고영관 | 고영태 | 고장석 | 고재운 | 고재흥 | 고정한 | 고종화 | 고진술 | 고창남 | 고춘화 | 고하나 | 고행호 | 고혜원 | 곡정강 | 공건식 | 공소혜 | 공우석 | 광명진 | 광민욱 | 광민지 | 광슬아 | 광영룡 | 광영아 | 광영태 | 광재성 | 광주원 | 광희용 | 광개토 | 구경민 | 구교섭 | 구기동 | 구덕모 | 구병모 | 구신희 | 구영준 | 구용모 | 구은자 | 구자성 | 구자숙 | 구자춘 | 구지영 | 구철모 | 구현주 | 구혜정 | 국수호 | 권경훈 | 권기선 | 권기하 | 권기환 | 권다미 | 권무일 | 권미신 | 권보근 | 권설아 | 권성언 | 권세환 | 권순명 | 권순용 | 권순욱 | 권순형 | 권승욱 | 권승혁 | 권아영 | 권영상 | 권영준 | 권영하 | 권영혁 | 권영훈 | 권오병 | 권오복 | 권오재 | 권오희 | 권용주 | 권은정 | 권은혜 | 권장혁 | 권재열 | 권주혁 | 권진경 | 권택영 | 권혁란 | 권혁중 | 권혜숙 | 권혜승 | 권호중 | 권희진 | 금은영 | 기경도 | 기경간 | 기세대 | 기요숙 | 기유미 | 길재호 | 김가연 | 김강식 | 김간식 | 김건우 | 김경석 | 김경선 | 김경수 | 김경순 | 김경원 | 김경지 | 김경태 | 김경환 | 김경희 | 김계숙 | 김계진 | 김고운 | 김공수 | 김광구 | 김광국 | 김광도 | 김광수 | 김광순 | 김광일 | 김귀분 | 김규리 | 김규태 | 김규현 | 김근영 | 김금남 | 김금지 | 김금화 | 김기쁨 | 김기연 | 김기홍 | 김기홍 | 김길성 | 김나리 | 김나연 | 김나예 | 김남위 | 김남은 | 김남일 | 김남중 | 김남표 | 김남희 | 김남예 | 김다영 | 김다정 | 김다혜 | 김단희 | 김대경 | 김대관 | 김대섭 | 김대식 | 김대욱 | 김대원 | 김대호 | 김 덕 | 김덕곤 | 김덕기 | 김도균 | 김도영 | 김도원 | 김도윤 | 김도훈 | 김동건 | 김동규 | 김동근 | 김동석 | 김동선 | 김동연 | 김동엽 | 김동욱 | 김동찬 | 김동한 | 김동호 | 김동환 | 김동훈 | 김두형 | 김두호 | 김득만 | 김란희

1천만 원 미만

개인

김래영	김률화	김만기	김만수	김명균	김명근	김명락	김명의	김명자	김무균	김문규	김문철	김미경	김미라	김미애
김미영	김미은	김미정	김미진	김미한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구	김민석	김민식	김민아	김민용	김민전	김민주
김민지	김배한	김범수	김범식	김범진	김병로	김병목	김병선	김병성	김병우	김병태	김병호	김보미	김보성	김보현
김보환	김보훈	김복자	김봉석	김부휘	김비비	김상경	김상만	김상민	김상범	김상빈	김상연	김상원	김상준	김석현
김선광	김선미	김선방	김선복	김선수	김선욱	김선중	김선철	김선호	김선화	김선희	김성국	김성민	김성수	김성식
김성용	김성윤	김성중	김성진	김성태	김성호	김성훈	김성희	김소연	김소영	김소현	김수덕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중	김수진	김수철	김수현	김슬기	김승겸	김승범	김승주	김승찬	김승현	김시은	김신	김신형
김아름	김애실	김양균	김양석	김여수	김연경	김연수	김연정	김연진	김영관	김영권	김영도	김영란	김영린	김영미
김영민	김영석	김영설	김영오	김영익	김영주	김영중	김영진	김영채	김영철	김영태	김영훈	김예술	김예영	김예주
김예희	김옥경	김옥지	김용겸	김용상	김용석	김용완	김용은	김용효	김용희	김우식	김우중	김우황	김욱균	김운호
김웅시	김원	김원욱	김원종	김원희	김유경	김유라	김유빈	김유성	김유수	김유진	김윤나	김윤범	김윤아	김윤홍
김윤화	김윤희	김은미	김은석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철	김은화	김은환	김은희	김이숙	김이준	김인수
김인자	김인환	김일현	김자현	김장석	김장수	김장원	김재경	김재욱	김재원	김재형	김재호	김재환	김재효	김재래
김정목	김정미	김정수	김정순	김정안	김정연	김정한	김정현	김정혜	김정호	김정화	김정훈	김정희	김종경	김종규
김종근	김종민	김종범	김종빈	김종석	김종선	김종엽	김종욱	김종완	김종우	김종원	김종인	김종철	김종호	김주설
김주형	김주훈	김준석	김준수	김준영	김준원	김준하	김준홍	김중섭	김중현	김지민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윤	김지일	김지화	김지희	김진균	김진배	김진상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영	김진욱	김진의	김진주	김진해
김진희	김창목	김창수	김창주	김창현	김천년	김천성	김철원	김철원	김철호	김철림	김치환	김태구	김태리	김태성
김태식	김태영	김태용	김태은	김태진	김태형	김태환	김태희	김평근	김하경	김하나	김학두	김학민	김학정	김한결
김한길	김한나	김한나	김한영	김한원	김한일	김항진	김해균	김해동	김해인	김해진	김혁	김혁규	김현	김현경
김현규	김현동	김현석	김현수	김현우	김현일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규	김형근	김형민	김형섭	김형재
김형준	김혜경	김혜란	김혜리	김혜림	김혜빈	김혜선	김혜인	김혜정	김혜진	김혜현	김호운	김호재	김호진	김호철
김홍교	김홍률	김화례	김화영	김효림	김효수	김효식	김효영(효성한의원)	김효중	김효진	김후경	김훈식	김홍대	김희강	
김희기	김희상	김희석	김희승	김희찬	김희환	나경수	나경진	나다연	나병우	나수양	나승연	나영걸	나윤봉	나인국
나인섭	나형민	나혜령	나호준	남궁미선	남기선	남기영	남기원	남기현	남도엽	남무길	남상수	남송은	남순건	남승우
남승희	남영수	남윤경	남윤재	남지숙	남중우	남주현	남태환	남혜승	남해정	노광숙	노대건	노대현	노동섭	노두식
노상균	노시학	노은영	노정훈	노준호	노태훈	노형은	다나카유키야	단세리	도예성	도하윤	도형우	동서연	동석호	
라승천	라재현	류문주	류봉하	류수지	류승훈	류인수	류재정	류중훈	류지환	마석원	맹만섭	맹원모	맹재득	목경열
목영진	묘우철	문명주	문병원	문병준	문상관	문상웅	문석윤	문영우	문정기	문종택	문주영	문준수	문중원	문항란
문혜림	문호빈	문희경	문희영	민경은	민경준	민경현	민관동	민동식	민무홍	민병집	민부기	민선영	민성욱	민성원
민솔기	민여련	민영선	민인식	민정기	박경규	박경연	박경원	박관주	박광현	박규창	박균성	박금열	박기유	박기홍
박동규	박동석	박동연	박동영	박동현	박명숙	박무원	박문서	박문선	박미라	박미리	박미선	박미애	박미원	박미정
박민선	박민우	박민호	박민희	박병진	박삼문	박삼미	박상민	박상수	박상식	박상익	박상철	박상현	박서익	박선경
박선영	박선희	박설희	박성규	박성민	박성우	박성욱	박성진	박성화	박세용	박소라	박소연	박수경	박수곤	박수인
박수진	박수현	박순기	박순복	박승진	박승환	박시연	박시홍	박신애	박신우	박신의	박아현	박영민	박영배	박영석
박영식	박영은	박영재	박옥심	박왕용	박용섭	박용승	박용식	박용흠	박우민	박우성	박웅덕	박원	박원갑	박원규
박원서	박원영	박유경	박윤근	박윤수	박은규	박은정	박은진	박은혜	박은희	박익환	박인영	박인철	박일완	박일우
박일진	박재두	박재명	박재모	박재성	박재양	박재영	박재용	박재우	박재현	박정미	박정수	박정애	박정열	박정은
박정호	박종갑	박종국	박종률	박종림	박종범	박종섭	박종원	박종찬	박종화	박주석	박주영	박주현	박주희	박준규
박준봉	박준상	박준영	박준혁	박준형	박중근	박중림	박지연	박지은	박지현	박지호	박진석	박진섭	박진솔	박진수
박진영	박진철	박진하	박진희	박찬	박찬욱	박찬웅	박창건	박창범	박창호	박철승	박초를	박최상	박태기	박태성
박태진	박평하	박한규	박한균	박항아	박현국	박현	박현경	박현동	박현신	박현정	박현주	박현준	박혜민	박혜주
박호석	박홍근	박홍렬	박홍주	박효정	박훈배	박환일	박희제	박희준	반건호	방기성	방성해	방수현	방준욱	방철호
방하나	배나영	배명만	배우미	배윤경	배정기	배정한	배중우	배지인	배지현	배진우	배태수	배한철	배현수	배현우
배형섭	배형찬	백광희	백남옥	백남환	백동엽	백미선	백민영	백민철	백상현	백선경	백성선	백성욱	백소영	백소진
백수철	백승선	백승현	백연수	백영숙	백운식	백운상	백은주	백정기	백중우	백주미	백지원	백현숙	백형환	변민경
변상현	변승	변욱	변재구	변정우	변지윤	변혜원	변희정	봉강훈	봉원덕	부백	부봉훈	부성희	부영민	부지연
사계절	서경아	서경진	서경화	서계령	서규훈	서다희	서덕순	서동연	서동원	서랑	서명훈	서명희	서문영	서미경

1천만 원 미만

개인

서미희	서민성	서보학	서상규	서소정	서수환	서승희	서신재	서연경	서연진	서영자	서영호	서예지	서원교	서인숙
서자옥	서장원	서정덕	서정섭	서정아	서정원	서종민	서종식	서주현	서주희	서지민	서진숙	서진태	서태원	서한나
서한영	서현선	서형심	서혜진	서효원	서효은	석광세	석소현	석정인	선효숙	설다영	설미현	설민규	설시진	설인환
설현주	성동욱	성민정	성시우	성 신	성은영	성은정	성주호	성춘택	성호태	성희용	성희진	소재선	소준형	소호섭
손경진	손기숙	손백현	손세일	손소희	손영수	손영옥	손영훈	손용기	손용석	손유미	손은영	손재용	손정원	손종곤
손주락	손주원	손주홍	손치동	손현아	손형민	송기을	송기휴	송명진	송미연	송민지	송병권	송병록	송병섭	송석원
송선영	송성원	송수연	송영호	송용범	송유나	송유례	송유리나	송윤희	송은규	송재규	송재룡	송재철	송정은	송재현
송종국	송지연	송지은	송창석	송청락	송필준	송하중	송해룡	송현수	송현주	송형석	송해경	송호남	송호창	송화경
송영욱	신건철	신경순	신경화	신동면	신동재	신명철	신문규	신미정	신민규	신민자	신범영	신병철	신병희	신선영
신성은	신성희	신수남	신술범	신승엽	신승훈	신 연	신옥영	신용섭	신용수	신용식	신용철	신우단	신우철	신원전
신유정	신은경	신은주	신응범	신익근	신인상	신정우	신종하	신주희	신종호	신지애	신진선	신진아	신한식	신현숙
신현운	신현정	신현중	신현필	신혜숙	신혜원	신혜준	신혜진	신호균	신홍철	신희남	신희연	신희정	심규미	심규영
심기성	심도희	심범상	심왕주	심우영	심유나	심인섭	심재수	심재준	심지연	안광석	안규석	안남윤	안남일	안덕근
안범철	안병주	안복현	안상우	안상일	안상훈	안선영	안선희	안성택	안성흙	안세영	안수진	안수찬	안연수	안연희
안영민	안영섭	안영환	안영호	안영훈	안옥모	안재욱	안재형	안정은	안주옥	안찬민	안창일	안초홍	안현민	안형준
안혜령	안혜신	안혜영	안효경	아마나카 아키코	양고운	양두연	양수진	양승진	양애연	양용모	양유정	양은미	양은진	
양인수	양정분	양정수	양정임	양제연	양종석	양주노	양주영	양호진	양효석	어승연	어혜림	엄두영	엄원섭	엄재영
엄채윤	여수정	여홍철	연점숙	염상국	염이슬	염진섭	염진철	오길중	오길창	오나선	오단비	오동건	오동재	오명숙
오미선	오민지	오범석	오상훈	오석란	오성택	오세홍	오수정	오승욱	오승윤	오승주	오승준	오승택	오연옥	오영석
오윤자	오은혜	오인환	오재민	오정숙	오정훈	오주형	오준근	오지영	오지원	오지은	오지훈	오창식	오창환	오천림
오태호	오택열	오하식	오현경	오현정	오형우	오혜경	오혜미	오혜숙	오환섭	오희선	옥도훈	왕명자	왕은영	왕미경
우동연	우민경	우보람	우수연	우승영	우예지	우응제	우정택	우제규	우주영	우춘환	우혜린	우홍정	우희철	원동현
원시태	원영국	원장원	원정숙	원주연	원준호	원형연	위영복	위정국	위정범	위혜림	유기혜	유기휘	유건호	유광석
유구한	유금환	유기덕	유기중	유길호	유도현	유명중	유명호	유병영	유병욱	유빛나	유성관	유성희	유세영	유수미
유시창	유신희	유영길	유영선	유영실	유영춘	유예지	유원준	유윤석	유은희	유익형	유인태	유재룡	유재홍	유정완
유종수	유종열	유종근	유지혜	유철균	유철호	유춘호	유태형	유태환	유혜수	유해인	유해자	유현석	유혜인	윤경구
윤경욱	윤경재	윤규영	윤기선	윤기탁	윤나라	윤나리	윤다은	윤대원	윤대호	윤동환	윤명숙	윤미라	윤미진	윤민향
윤병훈	윤상협	윤석진	윤선영	윤성상	윤성우	윤성이	윤소연	윤수연	윤순옥	윤영수	윤예솔	윤용식	윤우섭	윤유식
윤은경	윤은옥	윤인한	윤재승	윤재훈	윤정원	윤정주	윤제학	윤종근	윤종성	윤종인	윤주용	윤지웅	윤지현	윤진원
윤철상	윤태림	윤태영	윤태원	윤현수	윤혜연	윤혜인	윤홍일	윤화자	윤회수	은영규	음미라	이갑수	이강민	이건영
이경래	이경배	이경배	이경섭	이경전	이경태	이경호	이경희	이계희	이고운	이광봉	이광선	이광현	이광호	이권우
이귀성	이규민	이규원	이규진	이근수	이 금	이금화	이금희	이기룡	이기선	이기수	이기원	이기자	이기정	이기중
이기태	이기형	이기호	이기훈	이나영	이누리	이다겸	이다경	이다습	이다연	이다영	이덕재	이덕형	이덕호	이도훈
이동근	이동민	이동열	이동현	이동환	이동훈	이 래	이만근	이만균	이만재	이명귀	이명열	이명진	이명호	이미래
이미숙	이민수	이범석	이범준	이병삼	이병수	이병우	이병욱	이병준	이병철	이병훈	이보라	이보림	이보순	이복희
이봉암	이봉주	이상경	이상규	이상목	이상미	이상민	이상배	이상범	이상분	이상원	이상임	이상정	이상준	이상학
이상훈	이상휘	이서연	이석근	이석준	이석환	이 선	이선경	이선영	이선우	이선형	이선호	이선희	이성수	이성원
이상윤	이성인	이성재	이성호	이성희	이세재	이세희	이소정	이소형	이 슬	이수경	이수복	이수자	이수정	이수준
이수지	이숙자	이순옥	이순진	이순호	이승곤	이승룡	이승민	이승애	이승연	이승엽	이승우	이승재	이승주	이승직
이승현	이승혁	이승호	이승희	이아경	이아영	이애라	이연아	이영경	이영구	이영남	이영석	이영숙	이영순	이영욱
이영주	이영훈	이예경	이예나	이예솔	이예진	이오준	이옥자	이완길	이왕산	이용석	이용섭	이용성	이용승	이용택
이용학	이용호	이용희	이우휘	이운진	이윤희	이원용	이유미	이유섭	이윤구	이윤성	이윤수	이윤정	이윤희	이은경
이은별	이은선	이은숙	이은열	이은영	이은옥	이은혜	이의주	이이레	이인경	이인성	이인수	이인영	이인환	이일식
이자영	이장훈	이재기	이재동	이재열	이재우	이재원	이재진	이재호	이재화	이정계	이정교	이정길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열	이정원	이정은	이정일	이정재	이정주	이정표	이정학	이정현	이정형	이정화	이정희	이제승	이종구
이종석	이종수	이종안	이종인	이종필	이종혁	이종형	이종호	이좌자	이주경	이주연	이주열	이주영	이주현	이준무
이준학	이준희	이종재	이종희	이지나	이지민	이지산	이지선	이지수	이지아	이지연	이지영	이지현	이지혜	이지홍
이지희	이진곤	이진관	이진규	이진무	이진영	이진용	이진욱	이진화	이찬희	이창건	이창규	이창균	이창민	이창병

1천만 원 미만

기업 및 개인사업자

(주)골드윈코리아 | (주)국민은행 경희대국제지점 | (주)대우건설 | (주)대호석유(이승우 대표님) | (주)대흥인텍스 | (주)더난 | (주)동방 인천지점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바스트비전 | (주)바이오테카 | (주)브이피엠시큐리티 | (주)비스코덴탈아시아 | (주)비아로사 | (주)서희건설 | (주)선박무선 | (주)수국 |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 (주)신흥 | (주)쓰리디글로벌 | (주)악어미디어 | (주)에버택 교육 | (주)인슈라이프총괄법안보험대리점 | (주)자-씨 코리아 | (주)체스투어즈 | (주)태영건설 | (주)퍼시픽패키지 | (주)프로간장게장(프로F&B) | (주)하나투어 | (주)한국지적재산관리기술 | (주)혜영수산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가리봉의원 | 강남푸른정형외과의원 | 거제소방서 | 경희병원 | 고내과의원 | 구미공단예치과병원 | 굿월치과병원 | 굿월치과병원하단 | 굿월치과의원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금산부인과의원 | 김경훈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의원 | 김승국소아과의원 | 김외과의원 | 김태영외과의원 | 김호배외과의원 | 김홍기안과의원 | 뉴욕BNS치과의원 | 담다헌 | 대한미디어 | 덕양정보시스템 | 동산콘크리트산업(주) | 듀오 | 드림빌딩(서남영) | 박상호 소아·청소년과의원 | 변상윤정형외과의원 | 본내과의원 | 삼성과학상사 | 삼성화재 | 상록바이오랩 | 송정길내과의원 | 송파김내과의원 | 수원사무기기 | 안중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 어중건내과의원 | 엄치과의원 | 에스엠푸드서비스 | 영제의원 | 오내과의원 | 오스탬임플란트(주) | 와인클럽 | 우리관리 | 우리운송(주) | 울진군 | 웰니드치과의원 | 유이비인후과의원 | 윤내과의원 | 윤영혜산부인과의원 | 이건내과 | 이종원내과 | 이종연내과의원 | 이투스교육(주) | 인성병원 | 인천항만공사 | 장무성신경정신과 | 전이비인후과의원 | 제이앤제이 | 주식회사 스톤인슈 | 주식회사 이음스토리 | 주안제일의원 | 지구환경연구소 | 청담 구립 어린이집 | 최무수통증클리닉 | 코리아병원 | 키움증권(주) | 하남영상의학과의원 | 하동소방서 | 하이스트 시스템(주) | 한국다우케미칼(주) | 한국방송광고공사 |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한국피아노복원연구소 | 한나산부인과 | 현대영어서(주) | 현대동증의학과의원 | KB국민은행 경희대목련지점 | KT&G 경기본부 | KT&G 동대문지점 | PMMA 실용음악학원

단체 및 동문회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 (재)케이에스디나눔재단 | (재)한남학술재단 | 간호과학대학 학생회 | 간호사회 | 경방육영회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 고양Off-Campus 최고위지도자과정 15기 일동 | 관광대학원 교육대학원 61대 원우회 일동(김도균 외) | 기독교인교회(서울C) | 김기인총문회재단 | 담오장학회 | 대상문화재단 | 대한민국의사회봉사단 Korea Hands 경기도지원단 | 도서관자치위원회 | 도예과42회졸업생일동 | 동대문구약사회 | 동대문보육정보센터 단체 | 등롱회장학 | 매원장학재단 | 문화관광글로벌CEO과정 22기 일동(윤광섭 외 19명) | 미래인재육성재단 | 복음장학회 | 사학과 민주동문회 | 산학협동재단 | 삼공장학재단 | 삼금문화장학재단 | 상록복지재단 | 생명과학대학 행정실 | 생물학과 55회 졸업생 | 선정장학회 | 성남시장학회 | 성육문화재단 |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 | 시각정보디자인학과2회졸업생일동 | 심명문화재단 | 아프로에프지장학회 | 엘트웰민초장학재단 | 양진후원회 | 엘지니어스1기 | 연강재단 | 예은장학재단 | 와인소믈리에특별과정 18기 일동(남운성 외 18명) | 우리은행 재직동문회 | 우석문화재단 | 은성장학회 | 의송장학회 | 인산장학문화재단 | 일반대학원 무역학과조교일동 | 일본어과동문회 | 재단법인 동진장학연구재단 | 재단법인 선현 | 정산장학재단(태광실업) | 중앙도서관 작은음악회 | 천만장학회 | 청주동부소방서 | 체육대학원 박사과정원우회 | 총학생회 | 충남연기소방서 | 충북영동소방서 |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교실 전공의 일동 | 캠퍼스 열린예배 | 태장고등학교 학생일동 | 테크노경영대학원 글로벌교육경영자과정2기동문회 | 테크노경영대학원 녹색산업최고위과정1기동문회 |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8기 원우회 |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39기동문회 | 필정장학재단 | 하림장학재단 | 한국광전자학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한국유리육영회 | 한국지진공학회 | 한의과대학 6기 졸업생 일동 | 해성문화재단 | 현대오일뱅크장학사업회 | 협성문화재단 | 호텔관광대학 | 효원고등학교 학생일동 | 휴머니티스칼리지 | 흥한재단 | KBS강태원복지재단

후원의 집

(주)농림생약 | (주)명진씨앤피 | 경희대서점 | 경희뽕튀기 | 경희컴퓨터월드 | 경희타운(국제) | 노바이탈리아노 | 놀부 부대찌개 | 대관령황태해장국 | 도다리네 | 렌즈하우스 | 머내술밭 | 명성관 | 모닝글로리 | 박기준(비반트) | 박순남(황금오리) | 사보텐 | 삼국지 | 삼부자갈비 | 상그라 | 술낭구 | 시애틀 어학원 | 영성반점 | 영통복요리 | 오리마을 | 오피스넥스 수원점 | 우정원 빨래방 | 우정원 알파문구점 | 이니스프리 경희대점 | 정성본 경희대점 | 정혜교(코스피치) | 지호한방삼계탕 | 청솔디자인 | 크로네 | 평화철물건재 | 피플앤플라워 | 한다디자인 | 한양슈퍼 | 해송 | 황궁 | GS25(국제경희점) | Haru&Aki; Flowers Joyjeiclavent

• 발전기금 안내

발전기금 종류

● 발전기금 종류와 사례

일반 발전기금

- 기부자께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일반 목적의 기금

지정 발전기금

장학기금

-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학업 성취를 격려하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예시] 간호과학대학 장학기금, 체육대학원 장학기금 등

건축기금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신·개축 등을 지원
[예시] 한의과대학 건축기금, 국제캠퍼스 건축기금 등

연구기금

- 학제간 연구 활성화, 우수교원 초빙 등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예시] 치의학전문대학원 연구기금, 생명과학대학 연구기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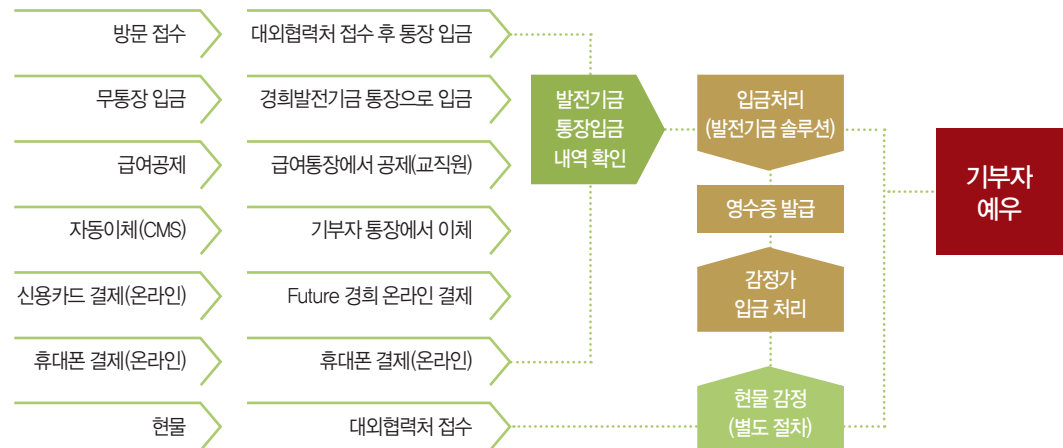
기타기금

- 장학, 건축,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단과대학(원) 및 부속기관 등 단위부서의 발전기금 사업을 지원
[예시] 문과대학 기금, 경희의료봉사기금, 중앙도서관 발전기금 등





● 발전기금 기부 프로세스



- 방문접수** 서울캠퍼스 본관 316호 대외협력처(Tel. 02-963-4874~6),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 213호 대외협력처(Tel. 031-201-3190~1)로 방문해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기부자님께서 아래의 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하시고 대외협력처로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서울캠퍼스: 하나은행(278-810023-98605), 국민은행(010-01-0618-642),
 우리은행(070-084146-13-101)
 · 국제캠퍼스: 하나은행(428-141962-19304)
- 급여공제** 교·직원의 경우 급여공제가 가능하며, 기부약정서 작성 후 대외협력처로 보내주시면 매월 월급에서 기부금 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CMS)** 자동이체는 기부자님의 은행계좌에서 지정금액을 매월 지정한 날짜에 자동 출금하는 방법으로, 기부자님께서 거래하고 있는 국내은행 예금계좌를 대외협력처에 알려주시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리하게 기부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기부** 대외협력처의 발전기금 홈페이지인 Future경희(<http://future.khu.ac.kr>)에서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봉사기금의 경우, 매그놀리아 스토리(<http://magnolia.khu.ac.kr>)에서도 쉽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현금 기부 이외에도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타자산(부동산 등), 도서자료, 실험실습기자재 등의 기증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외협력처 또는 관련기관과의 문의 및 상담 후 별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부자 예우

●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예우 내용		기부액	2백만 원 미만	2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학교 달력 발송			○	○	○	○	○	○	○
감사카드 증정(총장 명의)			○	○	○	○	○	○	○
연차보고서 발송			○	○	○	○	○	○	○
사회교육원,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개설 프로그램 할인			-	본인 30%	본인 50% 직계가족 20%	본인 70% 직계가족 30%	본인 80% 직계가족 40%	본인 100% 직계가족 50%	본인 100% 직계가족 70%
감사선물 발송	기부 약정 및 완료 시		○	○	○	○	○	○	○
	개교기념일		-	-	-	○	○	○	○
각종 행사 VIP로 초대			-	-	-	○	○	○	○
평생 도서관 출입증			-	-	-	-	○	○	○
평생 무료 차량 출입증			-	-	-	-	○	○	○
경희의료원 의료비 감면			의료원 예우 기준에 따라 적용						
장례식장 이용 (안치소, 빈소 임대료에 한함)	본인		-	15%	30%	50%	70%	무료	무료
	배우자		-	10%	20%	30%	50%	무료	무료
	직계가족		-	10%	10%	20%	30%	40%	50%

- 발전기금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
-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기부자님 명의의 장학기금을 설치해 드립니다.
-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서는 학교 내의 Hall of Fame(고액기부자 벽화)에 성함을 새겨 드립니다.
-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서는 감사패를 증정해 드립니다.
- 위 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건물 및 부속시설 네이밍 제도

일정액 이상 기부하신 분들께는 기부자님의 뜻을 기려 해당 단과대학(원)과 협의하여, 그 예우로써 건물 및 부속시설에 성함을 명명해 드립니다.

구분	내용
신축 건물 명명	해당 단과대학 총 건축비의 1/4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단과대학 간 기부금 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1/5 이상도 가능. 단, 기부자가 기업인 경우 최소 1/2 이상을 원칙으로 함.
강의실, 회의실 명명	2억 원 이상 기탁 시(大) / 1억 원 이상 기탁 시(中) / 5,000만 원 이상 기탁 시(小)
부대시설 명명	2,000만 원 이상 기탁 시(독서실, 휴게실, 실험실,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실 등)

● 건물 및 부속시설 네이밍 사례

조세희 강의실			강월순 강의실
이성호 교수 강의실			박종기 대사 홀
문주현 강의실			임진섭 교수 강의실
정종섭 강의실			전영원·김인숙 전자학 실험실
삼성전자 첨단교육기자재			평화의 전당 의자 네이밍

대외협력처 소개

발전기금사업
동문관계사업
교류협력사업

대외협력처는 크게 발전기금사업, 동문관계사업 및 교류협력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사업에서는 발전기금 조성·발전기금 관리·기부자에 우를, 동문관계사업에서는
총동문회를 비롯한 각종 동문회 지원 및 동문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교류협력사업에서는 지자체 등 국내 기관과의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운호 처장



임연희



김현경



서유미



박현정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서울캠퍼스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963-4874~6
Fax 02-963-4877
E-mail khsa0028@khu.ac.kr

국제캠퍼스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Tel 031-201-3190~1
Fax 031-201-3192
E-mail khu3190@khu.ac.kr

홈페이지 Future경희 future.khu.ac.kr
매그놀리아 스토리 magnolia.khu.ac.kr



‘경희 발전기금’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의 경희!

경희의 지난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이란 아름다운 미래를 이룰 큰 힘을 보여주는

경희의 살아있는 역사.

경희는 늘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세계 100위권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희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사랑과 아름다운 마음을

마음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부가 아름다운 대학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우

기부자님을 경희의 ‘가족’으로 모시며
특별한 혜택과 권리를 드립니다.

세금감면
혜택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기부이기에
세금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발전기금
납부 방법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등
더욱 편리하고 다양해졌습니다

2012 Annual Report No.10

Towards Global Eminence Kyung Hee University

발행인 조인원 편집 (주)이음스토리 발행 대외협력처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서울캠퍼스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963-4874~6 Fax 02-963-4877

국제캠퍼스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Tel 031-201-3190~1 Fax 031-201-3192